

코스피 2488.64 (+46.72) 코스닥 717.96 (+12.20)
 금리 2.524 (+0.042) 환율 1465.15 (-3.25)

정의선
 “기본기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02



내우외환 독감 앓는 韓경제

탄핵 정국에 ‘대외신인도’ 위기 최상목 권한대행 리더십 시험대

최 부총리 ‘尹 체포’ 미온적 태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더 키워 외신 “경호처 방해, 사법권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12·3 사태 이후 최 대행은 경제 불확실성을 수차례 언급하고,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또 한 달간 주재해 온 비상 경제·금융 점검회의의 의미도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4일 최 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시’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 했으

나, 최 대행은 경호 인력의 방어 일시 해제명령에 대한 거부(可否)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일 최 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는 지시를 통해 공수처 요청에 대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자정 기준)에도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과급이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선결과제가 아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가 꺾였다는 점을 국제무대에 내세우려면 진행 중인 정치 혼란이 진정돼야 한다. 지난 주말 외신들은 한국 공권력이 내란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꼬집었다.

AP통신은 한 변호사의 견해를 인용해 “경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원 명령에 따른 구금을 경호처가 막을 권한은 없다”며 “이러한 방해는 사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약 200명의 군인과 경호원들로 구성된 ‘인간의 벽’에 가로막혔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한 달 전 자신히 했던 선언을 곧장 번복해 나라를 정치적 혼란에 빠트렸다”며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국가 최고법원 중 하나(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소추 심리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외환보유액 석달 만에 상승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4156억 달러로 전월말(4153억9000만 달러)보다 2억1000만 달러 늘었다. 지난해 10월 42억8000만 달러 감소 이후 석달 만에 상승했다.

/뉴시스

‘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경찰 혼선 경찰 “尹 체포 일임 거부 공조본 체제서 2차 집행”

영장 기한 연장 등 통해 2차 집행 막아서는 경호처 현행법 체포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재집행 시, 이를 막아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현행법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의 체포·수색영장 집행만 일임한 셈이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보낸 공문이었다고 한다.

해당 공문을 6일 오전 7시쯤 접수한 국수본은 해당 요청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보고, 공수처의 요청을 거절했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백동흠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

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 재이첩 없이 체포·수색영장 집행만 일임받는 것은 위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경찰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공조본의 틀 안에서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체포·수색영장 시한이 자정에 만료됐다는 점이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공수처와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니 체포·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차 집행 때는 이를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법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대통령경호처는 도로에 차벽을 걸고, 스크림으로 대응해 영장 집행은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관저에 수사관 120명을 투입했는데, 사전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등 투입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건설 불황 악화일로... 투자 쪼그라든다

공사비 불안·PF 불확실성 지속 올 건설투자 규모 300조 밀돌 듯

올해도 건설경기 전망이 어둡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함께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건설투자(건설착공·공공공사·착공통계, 정부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가공해 추계되는 건설 투자액) 규모도 300조원을 밀돌 것으로 예상돼 건설사들의 실적에도 비상이 걸렸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4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해 약 302조원 인박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역성장세가 이어지면서 300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는 전년 대비 -0.7%에서 -2.1%로 기관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망치를 내놓는 시점이 늦을수록 감소폭이 컸다.

〈건설투자 전망〉

/한국은행

구분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투자(조원)	147.1	159.0	306.0	147.6	153.9	301.8	295.3
증감률 (%, 전년동기비)	1.7	1.4	1.5	0.4	-3.2	-1.4	-2.1

1)원계열, 실질(2020년 연쇄가격 기준)
 2)2024년 하반기, 2024년과 2025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경기는 상반기 부진하다가 하반기 들어 소폭 회복세를 보이면서 건설투자가 2024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건설공사비,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예상된 수치인 만큼 공사비 불안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건설투자 감소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오르기만 했던 공사비는 높은 수준에서 아예 고착화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나 뛰었다. 최근 다소 안정됐지만 2024년 8월 기준 129.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건설시장 물량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건설수주는 2023년 전년 대비 16.8%나 급감했고, 2024년 1~8월까지도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지난해 정부의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상반기에는 다소 개선됐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큰 폭으로 줄었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대통령실,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점검회의 소집...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여, 경찰 항의방문... “대통령 수사에 편향성 보이지 않아야” /사진 뉴시스

▲홍준표 “짜장면서 짜장 빼면 짜장면 되나... 내란죄 빼면 탄핵 무효”
 ▲“윤 체포 영장 집행” 두고 여야 대치 격화... “불법 영장” “최상목 탄핵”

▲헌재 “국회 측에尹 탄핵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동북아 허브’ 무안공항, 참사 딛고 날갯짓 언제쯤

정의선 “외부의 위기, 기본기 바탕으로 기회 만들어 달라”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신년회

“앞으로 피할수 없는 도전 기다려
낙관적·비관적 태도에 경계해야”

“핵심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경쟁자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만큼 우리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2025년 신년회를 통해 “외부 위기에 위축되기보다 현대차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 중심에는 임직원간 소통을 통한 혁신과 고객 중심의 가치실현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날 신년회 장소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가 아닌 일선 현장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남양연구소, 2024년 기아 오토랜드 광명, 2025년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등 최근 3년 연속 현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정 회장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은 우리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고객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며 “미래 세대를 이끌 어린세대에게 우리 비전을 보여주고 함께 꿈꾸길 바란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6일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2025 현대자동차그룹 신년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재훈 부회장,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 송창현 사장, 성 김 사장, 기아 송호성 사장, 현대글로벌서비스이규복 사장, 현대캐피탈 정형진 사장, 현대건설 이한우 부사장 등 그룹 경영진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임직원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회장은 새해 메시지를 통해 위기에 맞서는 관점과 자세,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변화와 혁신, 위기극복 DNA를 강조했다.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면밀한 준비와 유연한 자세로 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 회장은 “앞으로 피해갈 수 없는 도

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낙관에 사로잡히거나 비관적 태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위기가 없으면 낙관에 사로잡혀 안이해지고, 그것은 그 어떤 외부의 위기보다 우리를 더 위협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고, 훌륭하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 왔으며, 위기 이후 더 강해졌다”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면밀한 준비로 미래 기회 창출,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대응을 위

한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속도는 내부 결정 속도 정도가 필요한 것”이라며 “안전, 고객 만족에 더 충실한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생각한다”며 “기술은 단순히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실제로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최초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한 것과 관련, 정 회장은 “혁신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사장단인사에서 장재훈 사장을 완성차담당 부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25 현대자동차그룹 신년회에서 좌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에, 호세 무뇨스 사장을 현대차 신임 대표이사에, 성 김 고문역을 그룹 전략 기획 담당 사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내부 핵심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리더를 그룹사 대표이사와 주요 직책에 배치했다.

정 회장은 “혁신을 향한 굳은 의지는 조직 내부를 넘어 외부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한다”며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핵심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자와도 전략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권, CES서 ‘AI 혁신금융’ 선보인다

신한은행, 부스 ‘AI 브랜치’ 재현
홀로그램 은행원이 상담 등 진행
기업은행, IBK BOX 등 콘텐츠
통합한국관에 ‘IBK창공관’ 마련

금융권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2025’에 참석한다. 금융시장의 트렌드가 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업무 환경까지 변화시키고 있어 ‘CES 2025’를 통해 미래먹거리를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오는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 참석한다.

CES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한자리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산업 종사자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신한은행은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CES 부스를 꾸린다.

지난 2022년 금융권 최초로 CES에 참가한 신한은행은 3년 연속 세계 무대에서 IT 경쟁력을 선보이게 됐다.

신한은행 CES 부스에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소문에 개소한 ‘AI 브랜치’를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AI 브랜치’는 기존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영업점이다. AI 브랜치에 도입된 AI 은행원은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대화로 자연스럽게 상담하고 업무를 처리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해 개최된 ‘CES 2024’에 마련된 신한은행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신한은행

할 수 있다.

올해 CES에서는 ‘AI 브랜치’에서 테스트 중인 홀로그램 AI 은행원이 등장해 가상의 상담과 인출 서비스 등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CES 2025에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마련한다.

단독 부스에서는 AI와 금융의 융합으로 고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성장모형, IBK BOX, i-ONE Bank 등을 비롯해 기업은행이 투자·육성한 기업들의 영상, 게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을 통해 선발한 8개 스타트업의 ‘CES 2025’ 참가 지원을 위해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 통합한국관에 ‘IBK창공관’도 마련한다.

단독 부스를 운영하는 국내 은행은 2

곳에 불과하지만 금융지주들은 참관단을 꾸려 CES 2025를 찾는다.

KB금융은 매년 CES에 참가한 최재홍 사외이사(가천대 창업대학 교수)가 지주와 계열사 실무직원 20여 명과 현장을 찾는다.

우리금융은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과 계열사 IT·AI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꾸렸고, 농협금융은 지주사 6명, 농협은행 5명 등 소수의 실무 담당자를 파견한다.

하나금융의 경우는 그룹 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는 CES 참관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이 CES에 관심을 높이는 이유는 빅블러 시대에서 글로벌 신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AI를 통한 디지털 전환을 꾀하기 위함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中, 리튬 추출기술 수출규제 강화나서

韓, 밸류체인 다각화 의존도 타개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에 분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정과 핵심 광물인 리튬 추출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 업계는 배터리 소재 공급에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밸류체인 다각화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갈륨 추출을 위한 기술 공정을 수출 금지 및 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출 통제 대상이 흑연에서 양극재 및 리튬 영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술 수출 통제가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4년 12월 대중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하는 반도체 수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이튿날 미국에 대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발표 또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터리 부품 제조와 핵심 광물 공정 기술의 수출 제한 카드를 빼든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배터리의 70% 이상을 생산하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극재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음극에 국한됐던 수출 제한이 양극으로 확장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배터리 에너지 안보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기업들 또한 배터리 공급망 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배터리업계는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양극재의 중간·기초 소재를 경쟁 상대방인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이기에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중국의 공급망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필리핀을 인수하고 양극재 제조용 수산화리튬 2만톤 구매·공급계약을 체결을 체결했다. 또한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가부터 고가 전기차용 양극재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데이터센터 신설·증설 수조원 국가·기업 AI기술독점 현실로

자금력 충분한 대기업 중심 개발
“국가 차원 AI 인프라 구축 필수
글로벌 협력 통해 격차 줄어야”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신설 및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한 곳을 세우는 데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면서 이러한 경쟁이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해 6월까지 데이터센터 건설에 800억 달러(약 117조76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MS,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4개사의 총 자본 지출인 2090억 달러(약 308조원)의 약 38%에 달하는 규모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3일(현지시간) MS 공식 블로그를 통해 “MS는 2025 회계연도에 AI 모델을 훈련하고 전 세계에 AI·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며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MS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으로, 생성형 AI 모델의 훈련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MS는 전 세계적으로 30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자체 AI 개발까지 AI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MS는 이미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국적 정보분석업체 비주얼캐피탈리스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S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AI 데이터센터에 460억 달러(약 67조원)를 투자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했다.

같은 기간 구글은 330억 달러(약 48조1536억원)를, 메타는 270억 달러(약 39조4000억원), 아마존은 19억 달러(약 27조7200억원)를 AI 데이터센터 운영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다. 아마존은 현재 215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규모나 용량 면에서는 MS의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국가간 기술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기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국가들은 AI 경쟁에서 점차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모델의 훈련 비용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독점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과 아마존은 AI 모델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추론)보다 훈련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AI 모델 학습 비용이 데이터셋 구축, 전력 소비, 고성능 GPU 등 필수 인프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4년 AI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액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업계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의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술력 격차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게임업계, 다양한 장르 신작 예고… 수익개선 속도낸다

넥슨 3월말 ‘퍼스트 버서커: 카잔’
크래프톤 ‘인조이 얼리엑세스’ 예정
넷마블 상·하반기 8종 게임 공개

지난해 도전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게임업계가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개선에 속력을 낸다.

우선 게임사들은 본업인 신작개발에 집중한다. 특히 그간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장르 확장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오픈월드 액션 RPG, 시뮬레이션 게임 등 장르가 다양하고 대부분 PC와 콘솔 등 멀티플랫폼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장르 확장이 글로벌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실적 개선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우선 넥슨은 하드코어 액션 멀티플랫폼 역할수행게임(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카잔)을 오는 3월28일 글로벌에 정식 출시한다. 카잔은 중국에서 역대급으로 흥행 몰이를 한 ‘던전앤파이터’ IP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출시를 필두로 현지화 작업을 이어간다. 중국출시는 텐센트 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올해 넥슨은 서바이벌 슈터 ‘아크레이더스’ 등을 선보인다.

같은날 크래프톤도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의 얼리 액세스를 시작한다. 인조이는 기술적·사업적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넥슨



나 혼자만 레벨업:아라이즈 /넷마블

측면에서 특이점을 지닌다. 크래프톤은 AI(인공지능) 딥러닝본부가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 기반의 챗봇 기능과 모션 생성 기술을 인조이에 첫 적용한다. 이른바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다. 인조이는 또 크래프톤의 ‘베틀그라운드’ 단일 의존도를 줄여 기업가치 향상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올해 8종의 신작을 글로벌 시장에 공개한다. 상반기엔 ‘킹 오브 파이터 AFK’, ‘RF 온라인 넥스트’,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세븐나이츠 리

버스’를, 하반기엔 ‘The RED: 피의 계승자’,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몬길: 스타 다이브, 데미스 리본’ 등이다. 펠어비스가 6년간 개발한 ‘붉은사막’도 올 4·4분기 공개된다. 붉은사막은 펠어비스의 차세대 게임 엔진 ‘블랙스페이스 엔진’으로 개발 중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붉은사막은 멀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멀티 플랫폼은 모바일과 PC·콘솔 등의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수익 파이프라인이 다변화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엔씨는 아이온2에 실적 반등의 기대를 걸고 있다. 각각 독립 스튜디오 체제로 개발중인 ‘LLL’과 ‘TACTAN(택탄)’도 올해 공개된다.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발랄라 서바이벌’은 올 1분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7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서며 유저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게임업계는 국내 게임업계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올해를 수익성과 지속성까지 함께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일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게임 트렌드는 유저들이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유저 확보를 위해 앞으로 대처에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양자컴퓨터 관련주’ 관심집중

아이원플러스 등 단기 급등
금투업계 “변동성 유의해야”

미국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은 인공지능(AI)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도 꼽히며,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관련 섹터의 주가가 단기 급등한 만큼 단순 기대만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경계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자관련주로 꼽히는 아이원플러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94%(447원) 오른 19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달 6일과 비교하면 222%가량 오른 수치로, 양자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엑스케이트(+116.23%) ▲코위버(+101.19%) ▲바이오그리다바이스(+105.44%) 등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이 기간동안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컴퓨팅이 테마주로 급부상하며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스크(+

1935%) ▲리케티컴퓨팅(+334.25%) ▲퀀텀컴퓨팅(+120.68%) ▲디 웨이브 시스템(+80.63%) ▲아이온큐(+25.81%) 등이 양자컴퓨터 관련주로 떠오르며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양자컴퓨팅 관련 종목이 투자자들의 각광 받으며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테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금투업계는 양자컴퓨팅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섹터이고 현재 투자과열 현상이 짙어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한국첨단소재의 경우는 이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6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아이원플러스도 소수 계좌매수 관여 과다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AI 혁신과 양자컴퓨터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테마주 특성상 연율화 변동성 90% 수준의 급등락을 반복하므로 투자 시점 판단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野 “최 대행, 질서파괴 행위 방관·동조”

>> 1면 ‘탄핵 정국에…’서 계속

영국 BBC방송 역시 “합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인력이 막아서는데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했다.

야당은 최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3일)에 이어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기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최 대행은 이날 내한 중인 토니 블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관계·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체포 영장 집행을 제외하고, 정치·외교 일정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오는 8일부터는 각 부처 장관의 신년업무보고도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건설업계 경영난 해소 위한 지원책 필요”

>> 1면 ‘건설 불황 악화로’서 계속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제의 저성장세가 불가피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로 전반적인 건설투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국내경제의 침체와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정부의 정책 마련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특히,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건설기업 BSI는 63.1로 2010~2024년까지 평균치 65.1를 밑돌았으며, 지난해 1~8

월은 51.1까지 낮아졌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재무 건전성 악화되면서 신용도 관리와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에 대해 실적전망 ‘저하’, 신용등급 방향성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기업평가 역시 건설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건설업계 신용도는 진행 및 예정 프로젝트의 분양 성과를 통한 운전자본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며 “건설사들의 수익은 2023년 이후 수주 물량의 기성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성미 기자 smahn@

“배송경쟁·C커머스·소비위축’ 지속… 유통 전쟁 대비해야”

인터뷰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

지난해 유통업계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다. 차이나 이커머스(C커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며 본격적인 시장 재편이 시작됐다. 배송 경쟁 또한 한층 치열해졌고, 유통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주요 백화점들이 매출 부진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K푸드와 K뷰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유통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희망과 위기가 교차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의 유통업계는 또 어떤 모습을 맞이할까.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통해 미래 유통업계 전망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제26대 한국유통학회장을 역임한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2025년 유통 산업 전망에 대해 “굉장히 힘든 유통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통 전쟁을 예고한 첫 번째 요소는 이커머스 내 배송 경쟁이다. 현재 한국 유통시장에서 배송 경쟁은 더 이상 이커머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마트와 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이 빠른 배송과 맞춤형 배송 경쟁에 뛰어들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흐름은 택배사로부터 확산되고 있다. 주요 유통업체들은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과 협력하며 배송 전쟁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연승 교수는 배송 경쟁이 치열한 이유에 대해 기업들의 상품 차별성의 부재를 언급했다.

정 교수는 “배송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배송 경쟁력 말고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경쟁, 그리고 다른 서비스 경쟁력 등이 확실한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여러 플랫폼과 오프라인 업체들이 있지만, 업체별로 확실한 상품 구성, 즉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의 차별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이 배송이라고 하는 특정 서비스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유통 기업들의 상품 차별화가 쉽지 않은 현실도 꼬집었다.

“

상품 차별화 쉽지 않은 상황
가격·배송 중심 경쟁 치열
굉장히 힘든 한 해 될 수 있어

”

그는 “전반적인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소득 수준 하락으로 인한 가치분 소득 감소 등으로 결국 하이엔드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저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용 구매 패턴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시장에서는 상품 차별화보다는 가격과 배송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기 때문에 배송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의 시장 철수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위메프의 사례를 언급하며 “위메프 같은 업체가 왜 그런 결과를 냈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매출 부진”이라며 “자금이 돌지 않는 것은 결국 판매가 부진하다는 건데, 왜 판매가 부진하냐 하면 결국 경쟁이 심화되고 차별화된 제품 구성을 하지 못한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

데 더해 배송에서도 다른 기업보다 뛰어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부도 근본 원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정치적 상황도 불투명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은 또 더 닫힐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다면 핵심 화두는 결국 시장 구조 재편과 선두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 현상이나 타날 것”이라고 더 힘든 유통업계 상황을 예고했다.

◆ 차이나 커머스와 고환율…유통가 새로운 위기

유통업계가 직면한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차이나 커머스(C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략이다.

정 교수는 차이나 커머스 확대 이유에 대해 “차이나 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략 의도 자체에 포인트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가치분 소득 감소로 인해 실용적 소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는 “차이나 이커머스의 매출과 성장률, 시장 점유율은 올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원가 구조나 인건비 등 요건을 고려했을 때, 차이나 커머스 같은 기업들과 붙어서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남은 방법은 브랜드 제품경쟁력이나 매력적인 서비스를 더 많이 키우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이나 커머스가 한국 기업을 인수해 K-플랫폼으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통 시장 재편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유통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고환율 정책이 지속되면서 올해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

다봤다.

그는 “달러 강세가 쉽사리 꺼질 것 같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나라 특성 상 수입 원료와 수입 원자재들이 많은데, 지금 고환율 기조로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국내 물가에는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가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기업들은 지금 현재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을 고정 변수를 두고 경영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한류 열풍을 타고 K식품, K뷰티가 흥행해 왔지만, 올해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

C커머스, 韓 시장 본격 진출
국내외 불확실성 갈수록 커져
한류 활성화 등 정책지원 중요

”

정 교수는 “한류라는 흐름도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역량이나 영향력 등 요소와 상호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만약에 한국의 산업 경쟁력,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한류 문화 콘텐츠만으로는 계속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불안정한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따른 강력한 우려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경제와 정치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나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나라가 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현재는 K푸드 인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지금 정부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정연승 단국대 교수 주요 약력〉

-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 2000년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선임연구원
- 2003년 현대자동차 기획총괄본부 과장
- 2015년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2018년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 2020년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회장
- 2020년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21년 한국유통학회 회장
- 2023년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



지난 2023년 열린 추계 마케팅통합학술대회에서 정연승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비스마케팅학회

/유통이미지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李·김민석 나와라” vs “尹 나와라”... 내란 국조특위 신경전

〈興〉

〈野〉

오늘 2차 회의서 증인 채택 예정 국민의힘, 김어준 등 20여명 추진 민주당 “尹 채택 방해 위한 興 꾀수” 단독 의결 방침... 출석 가능성은 낮아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증인 채택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7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 등을 다룰 전망이다. 여야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증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승인 김어준씨 등 20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꾀수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특위의 취지에 맞게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 인사들과 김어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적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에 우려를 나

타냈고, 김어준씨는 국회 과방위 현안질 의에서 계엄을 위한 북풍 공작, 암살조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열리는 내란 국조특위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단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공세”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맞불을 놓기 위해 이 대표 등을 내세운 것이라는 의미다. 특위를 구성한 이유 자체는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실제로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므로,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증인은 반대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내란 국조특위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증인 채택하더라도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비협조적이라서다. 또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 통보를 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강성 지지층에 눈도장?...尹 관저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친윤계 의원 40여명, 관저 집회 참석 영남권 등 보수 강세지역 당선 의원 공수처尹 체포영장 집행 불법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 6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정치권에선 자신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 지지층에 ‘보여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확인된 인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권영진·구자근·김기현·김민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위상·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종권·송인석·서일준·서천호·염태영·유상범·윤상현·이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집식·조배숙·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등이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참석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의원도 있었다.

이들이 집회에 참석한 명분은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다. 김기현 의원은 “정치권이 잘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

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 하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법률적으로 봐도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서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 의원의 출신은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1명, 대구 6명, 경남 6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경북 9명, 울산 2명, 부산 2명, 비례대표 7명이다. 보수 지지세가 탄탄한 대구, 경남, 경북 등지에서 의원들이 대거 나온 것으로 보아 보수 강성 지지층에게 눈도장 찍히기 위해 아침부터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11명의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나경원의

원을 제외하고 관저 앞 집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행태에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영남권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라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의 여론에 반대되더라도 당 내에서, 주류로서, 앞으로 남은 선거 등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여기서 대통령을 세계 감싸고 국민보단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며 “그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崔대행 탄핵’ 두고 민주당 중진 이견

李, 崔대행에 ‘엄정한 책임’ 강조 박지원 “불만 있지만 탄핵은 성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가운데, 민주당 중진 의원 사이에선 최 권한대행을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

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 해라, 지휘해라, 불법 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엄정한 책임’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의총 후 이 대표는 추미애·조정식·

박지원·정동영·안규백 등 중진 의원들과 따로 모여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추미애 의원은 “한시 빨리 내란수괴가 체포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국정 정소화를 위해서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표께서 의총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어제(5일) 의원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이소영(민주당) 의원의 글을 읽고 이 의원의 주장에도 동의했다”며 “왜냐하면 최 권한대행이 현재 재판관 8인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으나,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興野, 제주항공 참사 특별대책위 구성 합의

이르면 금주 내 구성

여야는 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은 의견이 엇갈려 정하지 못했다.

박영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회동을 갖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데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참여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구성은 이르면 이번주 내

로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한다면 18인으로 구성된다. 10명(민주당), 7명(국민의힘), 1명(비교섭단체)인데 그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 인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신속하게 이번주 안에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영수 원내수석은 “특위는 12인 또는 18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안다”며 “인원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좀 더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포함, 7~9일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8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금리 인하’ 은행 대출 풀린다 “주담대, 당장은 고정금리 추천”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 연 4.21% 고정금리 하단이 0.63%p 더 낮아 전문가 “인하 폭·속도 예측 못해 변동금리 보다 고정금리가 유리”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라는 주문에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금리인하가엔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 등 4대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지난 5일 기준)는 연 4.21~6.14% 수준이다. 고정금리(연 3.58~6.35%)와 비교하면 변동금리 하단이 0.63%포인트(p) 높다.

변동금리 산정이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도 지난해 2월 3.84%에서 10월 3.40% 11월 3.37% 12월 3.35%로 낮아지고 있지만, 4대 은행의 변동금리는 지난해 2월(연 4.12~6.67%)과 비교해 하단이 되레 0.09%p 올랐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만기를 짧게 잡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데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토이미지

도 낮은 금리로 제공할 수 있다. 반면 고정금리는 은행이 장기간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붙어 금리가 높다. 과거 금리 공식과 달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주문한 영향이 크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낮췄다는 분석이다.

◆ 당장 금리낮은 ‘고정금리’ 추천

다만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고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리 인하기에

는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이자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당장 낮은 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의 인하폭과 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지금 당장 저렴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고 추천한다.

은행 관계자는 “보통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차이가 1%포인트(p) 이내일 때는 고정금리가, 이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본다”며 “경제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현재 금리 수준이 더 높은 변동금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단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확실히 낮아지거나 더 조건이 좋은 대출 상품이 나올 때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출 후 3년 이내에 갈아타면 0.6~0.7%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들은 올해부터 상환수수료를 1.2~1.4%에서 0.6~7%로 낮췄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갈아타며 주는 이자 부담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은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나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인터넷은행이나 정책대출 등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왼쪽부터)삼성·신한·NH농협·현대·하나카드의 기후동행카드 플래이트 이미지. /각사

카드업계 ‘기후동행카드’ 전면전

대중교통부터 실생활 할인 담야 개성 방점 카드 디자인 차별화

카드업계가 기후동행카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NH농협카드)이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고 사전접수를 시작했다. 서울시내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 매월 일수에 따라 5만8000원(28일)에서 6만4000원(31일)을 청구한다. 교통비를 청구 금액 이하로 사용한 경우 실제 이용금액만 내면 된다.

카드사 8곳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동참하면서 ‘전면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정책사업인 만큼 상표 가치를 높일 기회란 설명이다. 카드업계는 상품 하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타사와 차별화를 모색 중이다.

우선 신용카드 플래이트다. 신한·삼성·현대·하나·NH농협카드의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였다. 주기능은 대중교통 혜택인 만큼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MZ세대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보다 카드 플래이트 디자인을 우선시하는 성향도 존재하는 만큼 개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책사업으로 출시한 상품인 만큼 신용카드 플래이트로 차별화를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MZ세대의 경우 신용카드 선택 기준에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각 사별 디자인 경쟁도 치열한 것”이라고 했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일상 영역에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배달앱과 동영상재생서비

스(OTT)에서 10% 할인을 적용한다. 커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선 결제 비용을 5% 아낄 수 있다. 이어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5%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9000원(국내전용)이다. 삼성카드는 월 최대 2만4000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할인 내역은 ▲커피전문점·편의점(10%) ▲디지털 콘텐츠(30%) ▲배달앱·온라인쇼핑몰·올리브영·다이소(7%) ▲이동통신 정기결제(7%) 등으로 구성했다.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이면 할인폭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 연회비는 7000원이다.

KB국민카드는 쇼핑과 커피전문점은 물론 영화(CGV·롯데시네마) 및 스포츠 업종에서도 각각 10%, 5%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1만원이며 체크카드는 무료다.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달성하면 월 최대 1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롯데카드는 대중교통 할인 혜택에 힘을 줬다. 전월실적에 따라 기후동행 요금을 최대 1만5000원까지 할인한다. 이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0.5% 할인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신용카드만 출시했으며 연회비는 1만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출시 기념행사도 마련했다. NH농협카드는 이번달 NH농협카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고객을 1000명을 추천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1만원)를 선물한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KB국민 기후동행 체크카드’로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대 78만원을 돌려준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물론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을 탑재했다”며 “정책 상품인 만큼 과거 단종된 ‘해자카드’와 비교해서 혜택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탄핵정국 속 새해 1.3만 가구 마수걸이 분양

수도권 3940가구, 지방 9173가구 ‘래미안원페를라’ 로도 단지 주목 분상제 적용... 7억 시세차익 기대

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만3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1만4773)가구 대비 1660가구 정도 적은 물량이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총 가구수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단지·사전 청약 등 제외)은 18개 단지, 총 1만3113가구로 조사됐다. 전월(2만8070가구)과 비교하면 2% 가량 소폭 줄어든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940세대, 지방은 9173세대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2843세대 ▲서울 1097세대가 예정돼 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1097세대가 1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방배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단지로 46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당첨되면 7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에 기대감이 높다.

경기에서는 양주시 은현면 ‘양주영무예다움더퍼스트’ 644세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고양창릉S5 759세대 등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조감도. /삼성물산

분양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전북 2226세대 ▲경남 1575세대 ▲대구 1402세대 ▲울산 1379세대 ▲부산 1250세대 ▲세종 698세대 ▲전남 323세대 ▲광주 320세대 순이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 ‘거제상동2지구 센트레빌’ 1314세대, 광주 남구 월산동 ‘두산위브트레지움월산’ 320세대, 부산 북구 덕전동 ‘포레나부산덕전3차’ 429세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더샵라비온드’ 2226세대 등이 분양예정이다.

부동산시장이 탄핵 정국과 경기 침

체 등 정치·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건설사들은 2025년 마수걸이 사업장 분양에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시장의 풀림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와중에 수요자들이 청약단지를 선호하는 잦다는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 단지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전매 등이 없어 환금성이 용이한 단지, 입지의 희소 가치 등에 따라 수요 풀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BNK금융그룹, 설 특별대출 1.6조 공급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부산은행·경남은행 8000억씩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설날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BNK 2025년 설날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랜 경기침체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대출은 오는 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각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기안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

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연 1.0%포인트(p)의 금리감면도 제공된다.

이번 설날특별대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BNK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뜻깊게 동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정유업계, 친환경 연료 사업 본격화... 업황 돌파구 모색

항공, 선박 등 수요 증가 전망
설비투자·국제규격 인증 활발
“경쟁력 확보 위해 국가 지원 필요”

정유업계가 올해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환율 급등 등 복합적인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환경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5월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약 1조원 규모였던 SAF(지속가능항공유) F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약 2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SAF 사용 의무화가 이루어진 영향이 크다. 유럽 연합(EU)은 올해부터 유럽 지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최소 2%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해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사용 전량을 SAF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최근 정부 주도의 ‘석유 컨퍼런스’에서도 SAF와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정유업계는 SAF 개발 등 친환경 시장 개척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에너지는 코프로세싱 방식의 SAF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특히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유럽에 SAF를 수출하기도 했다. 이번 수출한 SAF는 코프로세싱 생산 방식으로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든 것이 특징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4년 5

월 국내 최초로 일본에 SAF를 수출했다. 회사는 EU 인증을 받은 ISCC EU 방식의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는 핀란드 네스테의 SAF를 공급받아 일반 항공유와 혼합해 제조한 CORSIA SAF를 지난해 일본에 상업 수출했다. GS칼텍스도 SAF 직접생산을 위한 설비투자(CAPEX)를 진행할 계획이다.

에쓰오일 또한 코프로세싱 생산라인을 갖추고 지난 2024년 8월 대한항공 정기노선 여객기에 주 1회 SAF공급을 개시했다. 9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정기여객노선으로 공급범위를 확대했다.

바이오선박유도 정유사들이 주목하는 친환경 사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선박유는 오는 2034년까지 시장 규모가 11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

한 연료로, 선박 엔진과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개조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선박 유 공급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바이오선박유 실증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바이오연료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법 제도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이르면 올해부터 바이오선박유의 국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SAF와 바이오선박유 등 친환경 연료가 글로벌 규제 강화와 맞물려 정유사들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 지원과 기술 개발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정유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제네시스 GV60 부분변경 모델.

제네시스 GV60 부분변경 모델 공개

제네시스 ‘GV60’가 한층 역동적으로 진화해 돌아왔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6일 럭셔리 준중형 전기차 ‘GV60 부분변경 모델(이하 GV60)’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번 GV60은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강인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가 더해진 외장과 ‘여백의 미’와 하이테크 감성이 돋보이는 실내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제네시스는 1분기 중 GV60의 상세 사양과 가격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SK그룹, ‘혁신의 문’ 세운다... AI 기반 미래 청사진 제시

CES 2025

4개 관계사 공동 전시관 운영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경영진 방문

SK그룹은 7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혁신 기술이 가져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SK는 CES 기간 중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서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C, SK엔트비 등 4개 관계사가 공동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전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 등 최고 경영진도 대



CES2025 SK 전시관의 입구인 ‘혁신의 문(Innovation Gate)’의 조감도.

거 방문한다.

‘AI 토털 솔루션’을 강조하는 최 회장은 국내외의 주요 기업관을 관람하며 첨단 AI 기술 트렌드를 점검한다. 이어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잇따라 만나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

SK그룹의 AI 사업 비전을 구체화

한 올해 전시관은 ▲AI 데이터센터(DC) ▲AI 서비스 ▲AI 에코시스템으로 채웠다.

특히 대형 발광 다이오드(LED) 화면 21개로 만든 ‘혁신의 문’이 전시관 입구 역할을 한다. 데이터 흐름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푸른색 전자 신호가 화면을 수놓는다. 이곳을 통과하면 6m

크기의 LED 기둥을 중심으로 AI 실력을 선보인다. 전시관의 마무리는 ‘지속 가능한 나무’라는 이름의 LED 조형물이 맡는다.

AI DC 테마로 구성된 전시 구역은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핵심 노하우인 에너지 효율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3E 중심의 AI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채웠다.

SK텔레콤은 AI 서비스 테마의 전시 구역에서 AI 기반의 기술·서비스 콘텐트를 공개한다.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올해 출시 예정인 AI 에이전트 ‘에스터(Aster)’를 현장에서 시연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도 발표한다.

AI 에코시스템 전시 구역에서는 SK와 함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사 5개사(가우스랩스, 람다, 엔트로픽, 퍼플렉시티, 핑귌솔루션스)의 AI 솔루션과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 ‘삼세페’ 구매혜택 강화

삼성전자가 가진 구독 제품들을 포함한 ‘2025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삼세페)’ 특별 혜택을 5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또 매주 월요일 10시 삼성닷컴에서 ‘삼세페 쇼킹프라이스’를 진행, 한정 수량 최저가 판매한다.

삼세페 쇼킹프라이스에는 구독 제품도 포함된다. 매주 월요일 공개되는 구독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12개월 구독료 상당의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품에 따라 AI 구독클럽 삼성카드 결제대금 차감 시 구독료 0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일반 제품의 경우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TV, 냉장고, 스마트폰, PC 등 총 30여개 제품을 매주 공개한다.

/김서현 기자

고려아연 “희귀·희소 금속 회수율 증대로 수익성 개선”

제련 기술력 앞세워 위기 돌파
니켈 사업 등 기술·설비 투자 확대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사진)이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력을 앞세워 위기를 돌파한다.

고려아연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힘든 상황에서 희귀·희소 금속의 회수율 증대를 앞세워 수익성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력을 토대로 수익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제련 수수료 하락과 산업용 전력 단가 상승 등 올해 경영 환경 전망이 밝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려아연은 비철 금속 세계 1위에 오른 기술력과 선제적 투자, 원가절감, 공정 개선, 맨파워 등에 힘써 수익성 악화 위기를 타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 비스무트 등 매출이익률이 높은 희귀·희소 금속의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적 역량을 집중한다. 회수 능력도 극대화해 매출총이익을 올해 253억원, 2027년까지 700억원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희귀금속 회수율을 품목별로 20~30% 이상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려아연은 주요 신사업 중 하나인

니켈에도 집중한다.

2차전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금속인 니켈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장 수요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니켈 원료를 내년 2분기 가동 목표로 건설 중인 울진원 니켈제련소에 공급하면 약 108억원 매출총이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 가능성이 높도록 기술 투자와 생산 시설 증대도 이어갈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제련 잔사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세스 재정립과 조업 기준 및 설비 강화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공정 개선으로 약 360억원의 매출총이익 성장을 올릴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 봉고 출시 45주년 ‘스마트 셀렉션’ 트림 선포

기아가 봉고 출시 45주년을 기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스마트 셀렉션’ 트림을 6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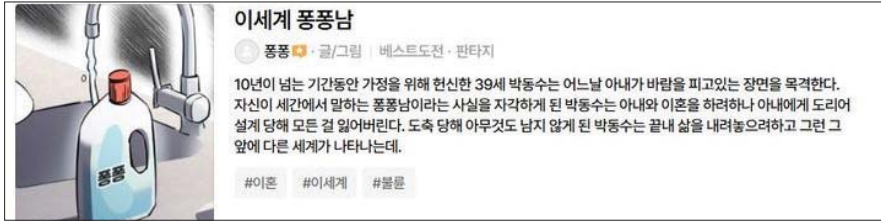
스마트 셀렉션 트림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 적용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PG 터보 1.2톤 스마트 셀렉션은 5단 자동변속기를 기본 적용하고 최고 출력 159마력(PS), 최대 토크 30.0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EV 1톤 스마트 셀렉션은 GL 트림과 동일한 배터리를 적용해 211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네이버웹툰 불매 여파 여전... 작가들 “생계 어려워졌다”

여성향 작품 매출 급감, 생계 위협
“작가들이 가장 큰 피해자” 호소
이용자 이탈 속 경쟁사 승승장구
네이버웹툰, IP 확장으로 대응 모색



네이버의 지상최대공모전에서 문제작으로 지적된 '이세계 풍풍남'의 연재 당시 화면. 무해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착취당한다는 내용으로 여성혐오적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불매운동이 이어졌다. /캡처

네이버웹툰에 대한 불매운동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스스로 네이버웹툰 시리즈에 연재 중이라고 밝힌 익명의 네티즌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불매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이 불매운동을 촉발시킨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이용자 마음 달래기에 나섰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SNS인 X(구 트위터)에는 네이버웹툰 시리즈 연재 작가라고 소개한 'A작가(닉네임)'가 자신의 네이버 명함을 첨부하고 “불매운동과 관련된 생계 문제로 글을 쓰게 됐다”며 “불매운동으

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네이버가 아닌 작가들”이라며 글을 썼다.

A작가는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매운동인 만큼 여성향 작품의 매출타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웹소설은 한 번 계약하면 최소 200화를 써야 완결 지을 수 있고, 계약도 그렇게 쉽게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플랫폼을 옮길 수도 없다”며 “여성향 작가들의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한다. 부디 한 번만 더, 독자들이 사랑한 작품의 작가를 떠올려달라”고 불매운동 중단을 호소했다.

네이버는 지난 10월 지상최대공모전의 1차 예선을 통과한 작품을 공개한 후 '이세계 풍풍남'이 여성혐오적인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독자들의 항의에도 해당 작품이 예선전 작품으로 버젓이 연재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일었다.

네이버는 지난 11월 사과문을 게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해 9월

1042만명에서 12월 983만 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여성 이용자가 532만 명에서 476만명으로 10.5% 줄어들었다.

결국 이세계 풍풍남은 최종수상에 실패했고 11월 네이버 웹툰 측은 “최근 공모전과 관련된 이슈로 독자 및 웹툰 창작자분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향후 콘텐츠 운영 정책 및 프로세스 개선 방향을 일부 공개했다.

이번 A작가의 호소 후 업계에서는 네이버웹툰의 상황을 ‘오리무중’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급등한 환율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환차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이 드러났는데, 네이버웹툰이 별달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이 내놓는 작품들은 유일무이하지만,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네이버웹툰이

불매운동으로 소비자들의 눈밖에 나면 서카카오페이지 등은 공전의 히트작들을 쏟아내며 승승장구 중이다. 이탈한 소비자들이 단기간 내 돌아올지는 미지수”라고 우려스러워했다.

네이버웹툰은 문제 해결책을 지식재산권(IP) 사업에서 모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스웨덴 스틸프론트 그룹의 모바일게임 개발 자회사 '나노비트'와 협력해 자사 웹툰 기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1차로 '작전명 순정'을 비롯해 '간 떨어지는 동거', '내 아이디(ID)는 강남미인',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비서 일탈' 등 인기작 5개를 게임화 할 예정이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협업을 통해 시물레이션 등 원작의 매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IP의 서비스 외연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향후 게임화 웹툰을 더 넓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알뜰폰 고객센터 '알닷케어' 오픈

있다고 6일 밝혔다. 알닷케어는 알뜰폰 이용 고객들이 자신의 가입정보, 휴대폰 정보, 요금·납부조회, 사용현황, 분실·정지·해제 등을 온라인에서 편하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고객센터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알닷케어를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알뜰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고객센터 '알닷케어'를 열었다. 알닷케어는 알뜰폰 이용 고객들이 자신의 가입정보, 휴대폰 정보, 요금·납부조회, 사용현황, 분실·정지·해제 등을 온라인에서 편하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고객센터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알닷케어를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타다, 임산부 탑승객에 8만원 상당 쿠폰팩

'예비엄마타다' 프로모션 진행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타다)가 임산부 탑승객을 대상으로 '예비엄마타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서울시 임

산부 교통 포인트를 타다 앱에 등록하면 8만원 상당의 타다 쿠폰팩 혜택을 제공한다. 쿠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 포인트는 타다 앱에 상시 등록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이노그리드, 해양치유 플랫폼 사업 수주

이노그리드가 '완도 해양 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완도군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양치유 산업과 관련한 빅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 대국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해양치유 자원 연구 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서비스, AI 빅데이터, 인프

라 각각의 플랫폼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완도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노그리드는 서비스와 데이터가 완도 해양치유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원활하고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인프라의 운영, 장애 지원 등 상시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 비전 AI로 초개인화 경험 제공

삼성 퍼스트룩 2025 진행
맞춤형 AI '비전 AI 컴페니언'
'네오 QLED 8K'도 최초 공개

삼성전자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개막에 한 발 앞서 '삼성 퍼스트룩 2025'를 진행하고 삼성 비전 AI(Vision AI)를 공개했다.

비전 AI는 삼성전자의 AI 스크린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뜻한다. 기존 TV의 역할을 확대, 사용자의 요구와 취향, 의도까지 미리 파악해 초개인화 한 스크린 경험을 제공한다.

비전 AI는 ▲콘텐츠 시청 중에도 한번의 클릭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알려주는 '클릭 투 서치' ▲외국어 콘텐츠의 자막을 실시간으로 우리말로 바꿔 제공하는 '실시간 번역'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배경화면'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돕는 기능인 ▲사용자의 생활 패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삼성 퍼스트 룩 2025(Samsung First Look 2025)'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턴이나 기기 사용 이력, 집안의 상태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및 적시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홈 인사이트' ▲가족 또는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패밀리·펫 케어' 등도 갖췄다.

개인 맞춤형 AI인 '비전 AI 컴페니언'도 공개했다. 사용자의 관심사와 질문을 즉각 시각화 해준다. 가령 사용자가 '여행지 제안'을 요청하면 맛집과 일

정 추천, 미술 작품 추천으로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안하는 식이다.

삼성전자는 비전 AI 등을 탑재한 'N Q8 AI 3세대' AI 프로세서를 탑재한 2025년형 '네오 QLED 8K(QN990F)'도 최초 공개했다. 2025년형 Neo QE LD 8K는 더 향상된 화질과 음질은 물론, 115형과 100형의 초대형 모델까지 출시해 시각 경험을 극대화한다.

/김서현 기자 seoh@

LG전자, CES2025서 공감지능 통한 미래 일상 선포

집·사무실·차량 등 일상 영향 구체화

LG전자는 오는 7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고객의 공감지능(AI) 경험을 다양한 공간으로 연결·확장하며 변화하는 일상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는 '공감지능과 함께하는 일상의 라이프스 굿'을 주제로 2044㎡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관 입구에는 가로 10.4m, 세로 5.2m 크기의 LED 키네틱(실제 움직이는 형태)의 작품 조형물이 설치된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집, 사무실, 취미공간, 차량 등 다양한 공간에서 AI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AI홈 존'에서는 LG '씽큐 온(ThinQ ON)'과 온디바이스 AI 기반 콘셉트 제품들이 집 안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연결된다. 고객의 말과 행동,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IoT 기기를 최적 상태로 자동 제어한다. 초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 신제품도 선보인다. 새롭게 공개될 '스마트 인스타뷰 냉장고'는 투명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냉장고 내부

에 설치된 카메라는 자동으로 식품을 인식해 LG 씽큐 앱에서 보관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카르텔(Kartell)'과 협업해 세계 최초 무선·투명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를 공개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공기청정기 '에어로 캣' 등 차별화된 가전을 전시한다.

LG전자는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적극 적용한다. 관람객은 비전 AI 기반 콘셉트 차량에 직접 탑승해 가상 운전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다.

/이혜민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예탁금, 새해부터 2.8兆 ‘쑥’... “코스피 펀더멘털 주목해야”

첫 거래일인 지난 2일, 57조583억 코스피, 전 거래일비 1.79%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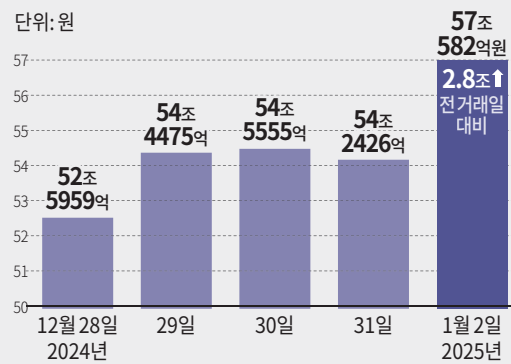
계엄사태 등 밸류에이션 최저점 근접 상반기 강세 염두... 비중확대 유효

새해 첫 거래일부터 투자자예탁금이 하루 만에 약 3조원 급증했다. 대내외 리스크와 탄핵 정국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국내 코스피가 1월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2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7조583억원으로 전 거래일 54조2427억원 대비 약 2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검은 월요일’ 직후였던 지난해 8월 6일 58조9618억원 이후 최대치다. 투자자예탁금은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주식투자 열기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연말이었던 지난달 일평균 투자자예탁금도 약 52조3913억원에 그쳤으나

최근 투자자예탁금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새해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전날 코스피도 전 거래일 대비 1.79% 상승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날도 1.91%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코스피의 6개월 누적 수익률은 -14.2%, 12개월 누적 수익률은 -9.6%를 기록하고 있다. 8월을 기점으로 코스피의 급락세가 유지됐고, 상반기 내내 순매수세를 보이

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서 마이너스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희 흥국증권 연구원은 “1월 효과”는 단기적인 증시 성과 부진보다는 중장기적인 증시 성과 부진과 강하게 연관된다”며 “이러한 중장기적인 증시 성과 부진과 이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역대 1월 증시의 경험은 기술적으로 올해 1월 증시의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올해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한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 연구원은 “매해 1월 증시의 성과는 대체로 당시 시점 영업이익 사이클의 추세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짙었다”며 “현재 영업이익의 사이클의 경우, 이익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짙게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1월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 리스크는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 영향은 단기에 종료됐다. 결국 중요조건 여전히 펀더멘털”이라며 “코스피 수익률에 정치 리스크의 영향력은 미미하며 펀더멘털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부분은 코스피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최근 수출 성장률 둔화로 한국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12월 수출 증가율이 선방한 만

큼 코스피의 펀더멘털, 실적 불안심리 등이 진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614억달러(90조2825억원)를 기록했으며, 2024년 수출 역시 6838억달러(1005조5962억원)로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2022년 6836억달러(1005조3021억원)를 경신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 초에 2025년 수익률을 생각하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계엄사태, 수출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억눌리며 밸류에이션이 최저점에 근접한 코스피가 손익비의 관점에서 더욱 부각될 수 있는 시기”라며 “올해 상반기 코스피는 지난해 4분기 답답한 흐름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 2600선 이하의 경우, 2025년 상반기 강세를 염두에 둔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제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권주, 실적개선·밸류업으로 올해 전망도 ‘장밋빛’

KRX증권지수, 전년비 14%가량 ↑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 수익 늘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매력도 ↑

지난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증권주가 올해도 실적 개선과 적극적인 밸류업 참여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RX증권지수는 지난해보다 14%가량 올랐다. 코스피가 약 7% 감소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개별증권사로 보면 NH투자증권(32.58%)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한국금융투자(21.96%), 키움증권(17.69%), 삼성증권(12.47%), 미래에셋증권(8.64%) 등이 뒤를 이었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권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미지.

증권주의 이같은 상승세는 실적 회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데다 시장 금리 인하로 인해 운용 수익도 증가

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6.3% 증가한 1조1269억원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97.7%, 59.3% 급증한 1조1163억원, 1조180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한국금융투자는 54%

증가한 1조2634억원, NH투자증권은 26.8% 늘어난 920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밸류업 공시를 발표하며 향후 3년간 ROE 15%, 주주환원을 30%, PBR 1배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보통주 1주당 7500원을 지급하는 결산배당을 결정해 배당을 크게 확대했다. 배당금 총액은 전년(881억원)보다 2배 증가한 2057억원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까지 ROE를 10% 이상, 주주환원 성향을 3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어 2030년까지 자사주를 1억주 이상 소각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3월 약 13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증권사 중 다섯 번째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지속가능한 자기자본이익률(ROE) 12% 확보 ▲ 예측가능한 주주환원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달성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올해도 실적 호조와 주주환원 강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증권주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의 수익구조에 따른 주주환원정책 이행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트레이딩 손익 기여도 및 투자은행(IB)부문 실적 회복세를 보유한 증권사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기반 높은 배당매력도를 보유할 수록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 수익률·샤프지수 1위”

꾸준한 자금 유입, 원화투자 최적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가 2년 연속 수익률·샤프지수 1위를 달성했다.

6일 펀드평가사 KGI에 따르면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는 전년 말 퇴직연금 온라인 클래스 기준 전체 빈티지에서 1년 수익률 1위에 올랐다. 해당 펀드 시리즈의 1년 수익률은 19.34%~28.37%, 6개월 수익률은 8.25%~11.10%로 집계됐다. 2023년에도 1년 수익률 17.17%~22.9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는 2022년 10월 출시해 총 7개 빈티지 라인업(▲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이 있으며, 같은 해 11월 퇴직연금 온라인 클래스(C-Re) 판매를 개시했다.

한투운용은 측은 “이 시리즈의 설정액은 전년 말 기준 2655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2116억원 늘어나며 급속도로 성장했다”며 꾸준한 ‘자금 유입’을 강조했다.

해당 펀드 시리즈는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인 ‘샤프지수’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시리즈 평균 샤프지수(1년 기준)는 2.62~2.75로 국내 TDF 시리즈 중 가장 높았다. 한투운용 측은 “같은 기간 각 빈티지별 샤프지수 2위는 1.72~2.36, 국내 TDF 전체 시리즈 평균 샤프지수는 1.3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은 “해당 펀드 시리즈에 운용 철학을 적용하기 위해 장기자산시장가정(LTCMA), 동적자산배분 곡선(Glide Path),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형 등 자체적으로 방법론을 구현했다”며 “특히 원화 투자자에게 최적화된 TDF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은 해외주식에 환노출 투자, 채권은 국내 채권으로 투자하는 크로스매칭(Cross Matching) 전략을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 펀드’를 100% 편입한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BF1이 전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상품 중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방법론 개발을 맡은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당사 운용 프로세스의 강점은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뿐만 아니라, 밸런스(BF)펀드, OCIO펀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감원,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 실시

공매도 전산화 방안 사전 준비 무차입공매도 여부 탐지 가능

향후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오는 3월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의 사전 준비로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이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법인이다.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모든 법인으로 거래발생 개연성이 있는 법인은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래법인의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 일

련의 절차를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하게 된다.

추후 한국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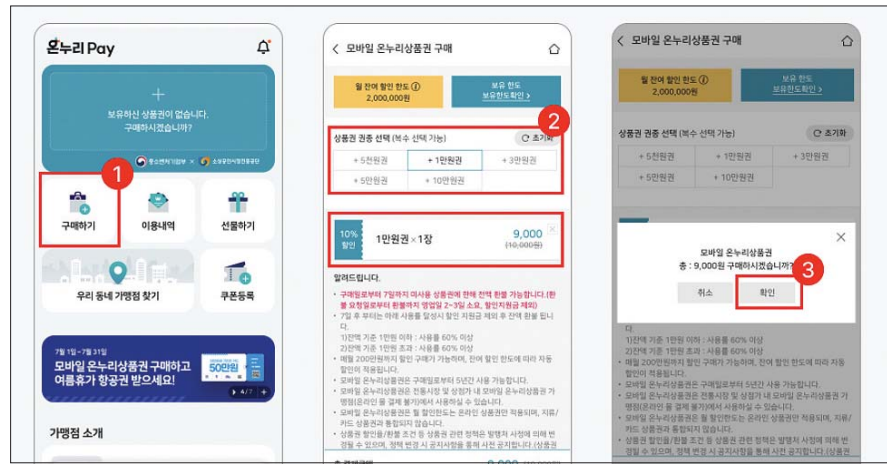
금감원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조폐공사 vs 비즈플레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갈등 격화'

비즈플레이
"3월 발행 확률 100만분의1 정도 사업연장에 비용 3억 3천만 원 사업포기, 소상공인 피해 줄여야"

조폐공사
"입찰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3월1일 정상오픈에 철저 준비중"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카드형과 모바일을 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발행이 두달 늦춰진 가운데 오는 3월1일부터 정상 케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인 웹캐시 계열사 비즈플레이간 갈바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의 '갑질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6일 이들 기관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3월1일부터 통합해 발행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기존에 KT(카드형)와 비즈플레이(모바일)가 각각 맡고 있던 사업에 대해 지난해 8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온누리상품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진공이 했다.

화제를 인쇄하는 조폐공사는 기존 지류(종이)형 온누리상품권도 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가 지류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모두 거머쥐게 됐다.

그런데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이미 사달이 났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통합 발행해야 했다. 온누리상품권 대목인 설명절이 1월 말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중순께 통합 발행 시기를 두달 미뤄 3월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늦춰진 2개월의 연장 기간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 발행은 기존 사업자인 KT와 비즈플레이가 각각 맡도록 했다.

비즈플레이의 모기업인 웹캐시 석창규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난 9월 조폐공사와 업무 회의를 하면서 1월1일 정상 오픈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이전 사업자로써 신규 운영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14가지 리스크와 사전에 반영해야 할 중점 사항을 제공했다. 결국 우리 예상

대로 조폐공사는 오픈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조폐공사가 다시 약속한 3월 1일 정상 오픈도 이상태라면 어려울 것이다. 단언컨데 (3월 1일 정상 발행)확률은 100만분의 1 정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 측에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사업자가 두달간 연장 발행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즈플레이의 경우 약 3억원의 비용도 떠안게 됐다.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석 회장은 "연장에 대한 손실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대신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폐공사의 연장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3가지 조건이란 하도급을 중지하라는 것과 ERD에 대한 정보보호약서 그리고 (정상)오픈시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관련 내용을 성장훈 조폐



웹캐시 석창규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계열사 비즈플레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공사 사장에게도 개인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석 회장은 "왜 민간의 영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와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사업은 플랫폼 구축사업이 아니라 운영사업이다. 그런데 조폐공사는 관련 사업에 대해 하도급 계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입찰 주무기관인 소진공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와 관련해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잡음 때문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내 '선물하기 기능'은 설명절 이전인 이달 10일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또 3월1일 예정된 오픈 일정 때문에

오는 2월15일부터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관련 업무가 멈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이날부터 사용할 수 없다.

소진공측은 "이용이 많은 설 명절 동안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 제약이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 구매·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설 명절 동안엔 카드형,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이미 확인된 조폐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향후 감사원 등 기관이 담당할 문제이고, ERD 기술 유출 가능성 역시 우려가 현실화됐을 때 조폐공사측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폐공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을 포기해 관련 업무 혼란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제2의 티맵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소진공은 오는 3월1일 약속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 시작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폐공사도 지난 5일 낸 보도자료에서 "발주기관인 소진공의 조달청 입찰 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며 3월1일 정상 오픈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인카드, 계좌이체 구매 기능, 직원별 상품권 대량 발송 등 기업구매 웹사이트 구축을 완료했으며, 모바일 상품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바뀌 투자 활성화

중기부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5년 이내 기업, 관리보수 삭감 미적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가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될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의 유보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구분	현행	개정
투자자	기관투자자(VC, 법인 등)	(현행과 동일)
투자형태	지분투자	지분투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단, 상환 만기일 2년 이상
투자금액	지분율 3% 이상	지분율 3%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해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업력 5년 이내 기업에는 재무제표 약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

는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시각물)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지만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3일부터...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3일부터 모집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산업 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분야 전환을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전환 컨설팅 ▲노동환경

경 변화에 능동 대응을 위한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올해 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가량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참여기업은 구조혁신 대응 수준과 사업전환 타당성을 진단받고,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획득

1년간 온실가스 21만톤 감축

휴롬이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자원 생산 인증을 받으며 ESG 경영에 추가로 나섰다.

휴롬은 한국스코프쓰리협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및 E-순환기버

년으로부터 전자제품 자원순환에 의한 순환자원 생산확인서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는 원자재 공급, 물류,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다. 순환자원 생산 확인서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전환

하여 새로운 자원을 생산한 기업에게 발급하는 인증서다.

이번에 인증받은 전자제품 자원순환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해당 기간 동안 휴롬은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해 7만3110kg의 순환자원을 생산해 총 20만8918kgCO₂eq. (이산화탄소환산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수출기업 등에 시설자금 보증 확대

고정보증료율 1.0% 적용

기술보증기금(기보)이 기업투자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기보는 정책지원이 필요한 중점분야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자금 우대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련 보증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자금 우대지원 대상은 기보의 중점지원 분야인 ▲신성장 4.0 ▲지방소재기업 ▲수출기업 등이다.

기보는 지원대상 기업에 고정보증료율 1.0%를 적용한다.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내부 심사과정을 간소화하고, 특히 전액해지조건 시설자금 보증의 경우 기업 신용도 검토를 완화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점분야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웰니스 트렌드에 ‘한의학’ 뜬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큰 도움

무협, 글로벌 전통의약 시장
2027년 시장 규모 7682억 전망
미국·유럽 등 고소득층 소비 늘어
원료 가공·응용 제품 경쟁력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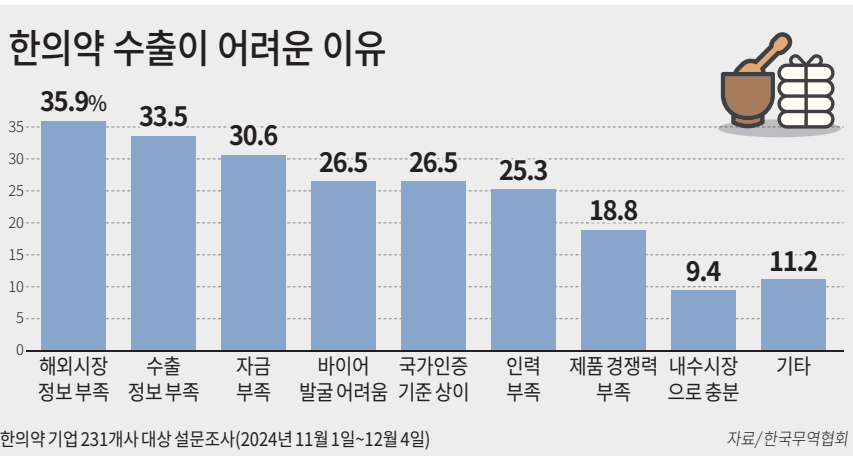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의료비 절감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한의약 등 전통의약 산업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글로벌 전통의약 시대, 한의약 산업 경쟁력 분석과 수출 촉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통의약 시장은 2022년 약 5186억달러에서 2027년 약 7682억달러로 연평균 8.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통의약이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도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동인당, 운남백약그룹), 인도(히말라야, 다부르), 일본(쓰무라), 독일(벨레다)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을 다수 육성하며 전통의약 위상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전통의약이 최근 웰니스(wellness) 트렌드와 결합해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고소득층 소비자를 중



심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시장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통의약인 한의학 시장 역시 2021년 약 12조6000억원으로, 2017년 11조원 대비 약 14.8% 증가하며 성장세다. 특히, 한의약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이 늘어나 새로운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수요는 해외에서도 발생해 한의학 제품 수출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무역협회가 한의학기업 231개사가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6.7%가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를 체감했으며, 64.1%는 이로 인해 매출에 긍정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26.4%

만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해외시장으로 진출한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수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는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부족(89.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자금부족(30.6%) ▲상이한 국가별 인증 기준(25.3%) 등으로 관련 지원사업과 정책 필요성이 확인됐다.

임지훈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아직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은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 등에 크게 뒤처지지만, 원료를 가공해 응용한 제품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한의약을 활용해 천연물신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한다면 우리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종경 임명

정부 “대외신인도 제고 적임자”

최종경(68·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임명됐다.

정부는 6일 “우리 경제의 건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중인 외국인 투자 유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협력투자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경제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했다.

정부는 “최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



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경제·산업·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과 함께 한미협회 회장 재임 중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향후 최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 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IR)시 국가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업분야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총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피해예방 현장조치 점검회 개최

이번 주 중·후반 한파 및 일부지방 대설 예보에 따라 정부가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가 나섰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오는 9일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일 원예·축산 등 분야별 사전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이날은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송 장관은 “농업인이 언론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농촌지도기관 등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7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며, 9일까지 서해안 3km 상공과 해수면의 온도차이(최대 약 32도)로 인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북 지역은 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설·한파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 40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도 해기차(약 55도)로 인해 많은 눈이 내렸던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농진청·농협·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했거나 노후화된 농축산시설 등 5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 버팀목 등 보강지주 설치, 외부 차광막·보온덮개 제거, 난방장치 점검, 시설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사항을 사전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층 일자리 상담

40세 이상 중장년층·사업장 대상
취업상담·심리검사·기업진단 제공

노사발전재단은 1월 한 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층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 내일센터 서비스 확산과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개인 및 고용 잠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심리검사, 기업진단 등을 제공하며, 센터별 교육과 서비스를 연계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지원하고 고용 잠재 기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된다. 구직자는 구직 전략 점검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경력 특성을 파악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 일자리 컨설팅, 맞춤형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수도권(서울, 인천)과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에서 운영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중

장년 인구의 약 75%가 거주하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선정했다. 거점센터는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으로 지정되며, 재단센터 2곳이 각 지역 내 상담 일정 조율과 운영을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등에서 운영되며,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순으로 지역 중장년층과 기업을 찾아간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해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 기업을 시상했다.

/김대환 기자 kdh@

‘서면 발급의무 위반’ 크래프톤 등 시정명령

공정위, 2곳에 과징금 총 6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각각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업종별 특성 반영 효과적 산재 예방 나서

안전보건공, 참여단체 모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달 3일까지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업종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예방 활동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업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사업을 기획·추진하면,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공모 과제는 업종별 협·단체가 노사단체, 비영리법인,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체 전문지식 공유, 자료 제작, 합동 컨설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협·단체가 독자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협·단체의 공정 전문가가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 및 합동컨설팅 실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 제작 ▲협·단체 담당자 안전보건 특화 교육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확산토록 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컨소시엄은 안전보건공단 본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인터파크 바로가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운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부산시-엘튼, 약 1兆 규모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

서부산 균형 발전 위한 관광지 조성
사하구 다대포 일원 공모 대상 추진
체험·관광시설 조성, 재정비 시행
엘튼, 5성급 관광숙박시설 건립

부산시는 6일 시청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하구, 엘튼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이갑준 사하구청장 그리고 민간 투자자로 박재복 엘튼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서부산 균형 발전을 위한 대표 거점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물론 주변 관광 기반 시설 조성에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하구 다대포 일원을 공모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자원 개발·보전과 민간 투자를 연계



부산시청.

해 기존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기반 시설과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사하구 다대포 일원은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등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과 잠재 수요객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남해안권 균형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양·지역 문화·자연 생태를 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 창출이 가능한 최적지로 이번 사업 대상지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올해 초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2곳이 선정될 예정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비지정과 본지정을 거쳐 기본 설계비로 국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다대포 일원 약 40만 평에 대해 민간 투자 약 8000억원, 재정투자 약 2000억원 지원, 총 약 1조원을 투자해 다대포 일원을 서부산의 대표적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반 시설로는 ▲복합 해양레저공간 ▲인공서핑시설 ▲해수풀장 ▲해양치유센터 등의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해안선 정리, 연안환경 조성 등의 관광자원 재정비를 시행한다.

한편, 엘튼은 지역 중견 건설사인 지원건설이 이번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다대소각장 부지에 글로벌 수준의 5성급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1만 2882.6㎡ 토지에 총사업비 약 6000억원을 들여 연면적 12만 5469.9㎡ 규모로 호텔과 콘도미니엄 398실의 호텔&리조트를 건립·운영할 예정이다.

다대소각장 부지가 개발되면 다대포 일원에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 부지 재개발 등 '다대뉴드림플랜사업'과 함께 서부산의 관광 동반 상승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다대포 일원을 해양·해안·지역문화·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해 서부산 관광산업의 새로운 구도를 선보일 것"이라며 "앞으로 다대포 지역이 해운대 등 동부산권, 북항권과 함께 우리 시 3대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농특산물판매장 불국점 전경

경주시

농특산물판매장 특별 할인행사

경주시는 이달 6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주농특산물판매장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주물 ▲경주농특산물판매장 본점(황남빵 본점 사거리) ▲불국점(불국사 상가 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할인 대상 품목은 2023년 K쌀브랜드 대상을 받은 이삭쌀과 지난해 서울국제수산물품전시회 쇼케이스 어워드 금상 수상작인 멸치액젓을 비롯해 버섯, 벌꿀, 들기름, 미역 등 고품질 농수산물과 경주의 특색 있는 기념품까지 다양하다. /경주(경북)=최희준 기자 asdadx@

광주시, '10시 출근제' 참여사 모집

초등학교부터 자녀돌봄 고충 해소
참여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올해부터 지원건수, 지원액 확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각 장려금'으로 불리며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는 '초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초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중·고등학교부터 근로자가 최대 2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방

식이다.

'초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는 학부모들에게 임금삭감없이 1시간을 근로 단축한다는 점과 사업주 및 동료들에게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이별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는 저출산 해결의 선도모델로써 사업장의 고용 유지·근로자의 돌봄 고충 완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건수와 지원액을 확대했다.

올해 지원건수는 500건으로 지난해 300건보다 크게 늘렸으며, 건당 지원액도 지난해 월 37만400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김해시, 올해 환경분야에 2186억 투입

'지속 가능한 글로벌 환경도시' 목표

김해시는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환경도시'를 목표로 환경 분야에 지난해보다 433억원 증가한 2186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환경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 중립 ▲탈(脫)플라스틱 필(必) 자원 순환 ▲아름답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1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김해시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지

속가능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김해시 환경교육종합계획('26~'30)을 수립하고 ▲환경교육주간(6월 4~10일)을 운영해 환경 음악회 및 공모전 개최 등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 강화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등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한다.

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 등과 함께 화포천습지의 세계적인 명품 습지 도약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는 총사업비 311억원을 투입해 체험형 전시시설을 올해 6월에 준공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울산시-석유공, 동해 석유가스자원 개발

탄소중립 업무협약 등 체결

울산시는 6일 시장실에서 한국석유공사와 동해 석유가스자원 개발 및 탄소 중립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 수소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와 에너지 허브 울산남항사업, 동해 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실증 사업 등을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가 상호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참석, 앞으로 ▲동해 석유가스자원 개발 ▲지

역 신산업 육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동해 심해 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 암모니아 공급 체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에너지 허브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협의체 구축 ▲시범 및 실증 사업 선정을 위한 공동 대응 ▲산·학·연·관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이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는 다양한 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하동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경남 1위'

총 모금액 6억6800만원 달성

하동군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압도적 기세로 총 모금액 6억 6800만원을 달성하며 경남도 내 1위를 차지했다.

6억 7000여만원의 모금액은 목표액 5억5000만원의 134% 초과 달성함은 물론 2023년 모금액 4억 300만원의 165%를 웃도는 기록이다. 이로써 하동군은 2년간 누적 모금액 1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하동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였던 열악한 지방 재정 보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부합하게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성과는 모금액 질도 우수하다. 총 5094명이 참여해 1인당 평균 13만 1000원을 기부했다. 일부 고액



하승철 하동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 경남도내 모금액 1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동군

기부에 의지하지 않고 다수 국민의 참여를 끌어낸 결과다.

기부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2023년엔 경남(40%), 부산(19%), 서울(10%), 경기(9%) 순으로 이웃 고장의 참여율이 높았다. 그러나 2024년에는 경남(34%), 부산(13%), 서울(14%), 경기(16%)로 참여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대구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시행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이 기간 대구시 동구에 설치된 대구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한 사람 숫자가 225명으로 전국 최다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았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울주군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 '최우수'

울산 울주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상태와 운용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한다.

울주군은 ▲사업비 편성 비율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 등 여러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동종 군유형 지자체 중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126.7억 발행

산청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6일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126억 7000만원 규모의 산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상품권 발행 예산은 전액 군비로 편성했으며 국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현재 성과에 멈추지 말고, 세상 놀라게 할 진화 지속하자”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신년사서 핵심역량 강화 등 강조
 “가장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불가능의 룰 깨는 힘 우리 안에 있어”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핵심역량 강화’, ‘웰니스&헬스케어’, ‘시너지 기반의 사업다각화’를 강조하며, 그룹의 성장과 진화를 지속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김정수 부회장의 2025년 신년사 영상을 6일 공개했다. 해당영상에서 김 부회장은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한 첫해인 2024년, 식품업계 최초 ‘7억불 수출의 탑’ 수상, 단일 브랜드 기준 ‘불닭’ 수출액 1조원 등 기념비적 실적을 냈다는 점을 밝히며, “2025년에는 삼양라운드스퀘어 임직원들이 더 큰 자부심으로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재 성과에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첫 번째 전략 키워드로 ‘핵심역량 강화’를 제안하고 “현재 가장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집중해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이 2025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삼양라운드스퀘어

어떤 경쟁자도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5년에는 생산량 증대, 해외 공장 진출, 생산 현지화 실현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제품생산 역량을 지금보다 강력히 내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적인 혁신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도 ‘MEP’의 글로벌 시장 내 성공적 안착을 이어가고, ‘탱글’과 ‘책앤필스’를 통해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 시장을 공략하는 등 그룹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글로벌 브랜드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웰니스&헬스케어’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룹이 추구할 두 번째 미래 방향으로 제시했다. 현재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삼양라운드힐의 웰니스센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정밀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 건강개선 서비스 사업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김 부회장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 사명을 다해온 헤리티지를 근간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해 식생활을 넘어 ‘웰니스&헬스케어’를 실

현하는 전문적 역할로 업의 가치를 재정의하고자 한다”며 “웰스케어와 식품 간 경계와 고정관념을 허물고 통합적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너지 기반의 사업 다각화’를 올해 그룹의 세 번째 전략 키워드로 제시하며, “R&D,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콘텐츠, 물류 등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 확장을 시도해야 한다”며 “라면 외 소스, 스낵, 간편식, 음료 등 주력 포트폴리오 상품군을 확장하고, 헬스케어 관련 카테고리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웰스케어 컴퍼니’라는 새로운 가치를 개척해 나가는 여정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불가능의 룰을 깨는 힘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삼양라운드스퀘어의 정신을 되새기며 새해에도 삼양인답게, 세상을 놀라게 할 진화를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한 방문객이 노트북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전국 320개 매장에서 ‘하이라이트 빅 세일’

롯데하이마트가 이달 한 달간 ‘롯데하이마트 하이라이트 빅 세일(BIG SALE)’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전국 320여 개 매장에서 노트북, 태블릿 등 IT 가전을 비롯해 밥솥, 그릴 등 주방가전까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인 제품들을 선별해 할인된 가격에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북4(256GB)’를 500대 한정 79만9000원에 선보인다. 또한 지난 2024년에 가장 많이 판매된 ‘로지텍 M190’을 3000대 한정 9900원에 제공한다.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 고3(256GB)’를 109만9000원에,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256GB)’를 117만9000원에 선보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주방가전을 할인하는 행사도 준비했다. 쿠쿠전자 ‘IH 전기밥솥(6인용)’, 태पाल ‘스모크리스 이지 그릴’, 해마루 ‘특대형 잔치팬’ 등이 준비됐다. /안재선 기자

설 선물 키워드 가성비·가심비... ‘실속선물’ 인기

CJ제일제당, 3만원 미만 세트 확대 대상, 파스타 세트 등 선택의 폭 넓혀
 대형마트 3사, 5만원 이하 상품 늘려
 이커머스, 50% 할인 프로모션 진행

설을 앞두고 유통·식품업계에서 설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에 부담없는 가격대의 실속선물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선물세트 키워드는 ‘가심비’와 ‘가성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은 웰니스·가성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 260여종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선물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3만원 미만의 저렴한 선물세트도 지난 추석대비 물량을 약 14% 확대했다. ‘특별한 선택 T-2’와 ‘비비고 토종김 1호’는 1만원대의 가격으로 실속있게 구성했으며, 요리올리고당·스팸 등으로 구성된 ‘특별한 선택 E-1’도 명절 부담없이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이다.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들의 물량도 대폭 늘렸다. 지난 설 첫 선을 보인 ‘스팸 닭가슴살’은 지난 추석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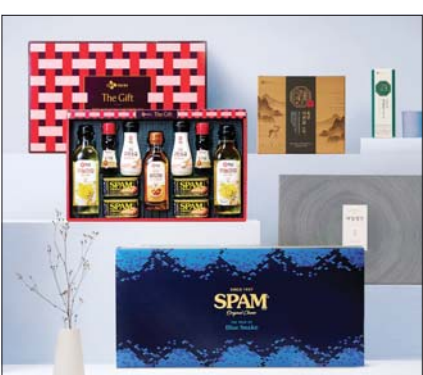


대상(췌) 청정원 명절특선호 선물세트. /대상

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이번 설에는 지난 추석 대비 물량을 약 66% 확대했다.

대상은 명절 선물세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와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잡은 다양한 설 선물세트 라인업을 준비했다.

특히 2만원대 가격의 실속형 제품부터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매년 인기리에 판매되는 청정원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세트는 ‘시그니처 파스타 세트’와 ‘맛선생 국물내기 세트’ 2종으로 구성했다. ‘시그니처 파스타 세트’는 청



CJ제일제당 2025 설 선물세트. /CJ제일제당

정원 파스타소스 프리미엄 라인인 시그니처 파스타소스 제품 3종을 비롯해 튀김마늘 후레이크, 파슬리, 크러쉬드 레드페퍼, 올리브유, 스파게티면 등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탄핵 정국과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모습에 대형마트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하다.

대형마트 3사는 1~5만원대 상품을 늘렸다. 이마트의 경우 올해 설 선물세트 중 5만원 미만 상품은 38.9%로 비중이 가장 높다. 지난해 설 대비 4.7% 포인트 늘린 수치다. 롯데마트는 합리적인 선물세트를 선보이기 위해 지난해

설 사전예약에 인기있던 견과 선물세트 품목 수를 50% 늘리고 물량도 30% 확대했다. 1만원대 이하 초가성비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비비고 토종김 5호’, ‘내과 남·여 스포츠 양말 선물세트(3족)’ 등으로 각각 9900원이다. 휠라, 컬럼비아, 피에르가르맹 등 유명 브랜드 양말도 1만 원대 미만 가격으로 선보인다.

11번가와 G마켓, 롯데온 등 이커머스 업체도 설 선물세트를 판매에 돌입했다. 11번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설 선물 한가득’ 행사를 진행하며 11~24일까지는 ‘설 명절 한가득’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G마켓과 옥션도 23일까지 ‘2025 설 빅세일’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행사기간 할인 쿠폰을 매일 제공하고, 로보락과 삼성전자,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정관장, CJ제일제당 등 18개 메가브랜드 상품을 위한 추가 혜택을 선보인다. 명절 선물세트는 1만~3만원대 등 가격대별로 구분했으며, 설 특집 라이브방송은 G마켓과 옥션에서 동시에 매일 오후 8시 시작한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최대 50% 할인 ‘릴레이 특가’

일주일간 ‘그레이트 워크’ 진행

SSG닷컴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이달 12일까지 일주일간 장보기 상품 릴레이 특가 행사인 ‘그레이트 워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 첫날인 6일에는 과일 특가 행사가 열린다. 지역에 따라 설향딸기, 제주산 제스프리 골드키위, 더달콤 스테비아 대추 방울토마토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달 7일에는 육류 할인 행사가 진행

된다. 한우 정육 불고기와 국거리를 반값에, 미국산 프라이م 척아이볼 스테이크는 4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무향생제 돼지고기 ‘설성한돈’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8일과 9일에는 간편식과 가공식품 행사가 각각 열린다. 간편식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가공식품은 일정 수량 구매 시 추가 상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는 주말 장보기 행사로 달걀, 라면, 두유 등 다양한 장보기 상품을 최대 반값 수준에 선보인다.

SSG닷컴 관계자는 “릴레이 형태의 특가 행사로 체감 혜택을 높이고자 했다”며 “새해에도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해태제과 2025 모든 소망 응원 ‘홈런볼 신년 에디션’

해태제과가 새해 소망을 힘차게 응원하는 ‘홈런볼 신년 에디션’을 출시한다.

해태제과는 2025년 모든 소망을 응원하기 위해 대용량 사이즈 홈런볼 25만 개를 준비했다고 6일 밝혔다. 넉넉한 대용량이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나눠 먹기도 좋다. 대형 홈런볼로 가족, 친구와 함께 달콤한 과자도 즐기고 새해맞이 힘찬 응원과 행운까지 전달하기 안성맞춤이다.

해태제과는 고객들이 원하는 새해 소원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4가지 소망을 선정했다. ‘건강 홈런’과 ‘머니 홈런’, ‘취보 홈런’, ‘내인생 홈런’ 등이다.

홈런볼 마스코트 ‘로(Ro)’가 신입사원 정장과 선글라스를 쓰고 돈을 움켜쥐는 모습으로 등장해 힘찬 응원을 전한다. 제품 패키지 앞면의 QR코드를 통해 새해 소원도 빌고, 행운도 점쳐보는 더블 이벤트도 진행한다.

새해 소원을 댓글로 공유하는 ‘소원공모’와 이벤트 페이지의 2025의 1~25 배수의 접속자가 당첨되는 ‘럭키당첨’ 이벤트다. /신원선 기자

K제약바이오, 전 세계에 CDMO·신약개발 역량 알린다

(위탁개발생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삼성바이오, 압도적 생산능력 확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대 구축

롯데바이오, 선수주 체계적 준비
셀트리온, K신약 기업 지위 다져
온코네티라퓨틱스, 글로벌 교류 확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들이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콘퍼런스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5'에 총출동해 K제약·바이오 입지를 다진다.

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해 43회를 맞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550여 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8000명 이상의 투자자, 제약·바이오 관계자 등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JP모건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고 있다.

특히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올해도 행사 핵심 무대인 '그랜드 볼룸'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일라이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발표에 참여한다. 주최 측은 전 세계 주요 업체만을 공식 초청하고,



올해에 앞서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4'에서도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그랜드 볼룸 발표를 맡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초청 기업 가운데 선별된 27개 기업만 그랜드 볼룸 발표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립 대표는 행사 둘째 날인 14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적 수준으로 갖춘 초격차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4월 5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K-CDMO'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 리터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설계됐다. 5공장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2월 제임스 박 대표이사를 새롭게 영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4000리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확대 구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 신규 시설을 설립하고, ADC 관련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단백질 디자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과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CDMO 후발 주자인 롯데바이오로

직스는 새로 선임된 제임스 박 대표가 출격해 '바이오의약품 및 CDMO 산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공유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인천 송도에 3개의 바이오 플랜트를 건설해 총 36만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1·2·3공장을 각각 2025년, 2027년, 2030년 준공할 계획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가동될 1공장의 선수주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인수'와 '설립'이라는 두 트랙 전략을 펼치며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현지에도 생산 기지를 마련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12월 미국 뉴욕 동부 시러큐스에 위치한 BM S 공장을 인수해 바이오의약품 CDMO 시설로 전환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전격 공개한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서진석 경영사업부 대표이사가 함께 참석해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에서 신약개발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9년 첫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ADC 신약 3종, 다중항체 신약 3종 등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찍이 바이오시밀러 강자로 자리매김한 셀트리온은 지난

해 '2025년까지 11종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또 셀트리온이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발매를 시작한 짐펜트라는 초기 시장 진입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셀트리온은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인 '짐펜트라'를 연 매출 1조원 수준의 K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공시키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K신약' 기업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새로운 국산 신약을 내놓은 온코네티라퓨틱스도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공식 초청받으면서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한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를 자체 개발해 해외 21개국에 기술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코네티라퓨틱스는 합성치사 항암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을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확보했다. 이 물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최장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이처럼 앞서 개발한 신약을 상업화한 성공 경험, 자체 자본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강점으로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자들과 적극 교류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홍산삼 성분으로 피부에 보습·탄력을”

LG생활건강 '더후' 진윙향 안티 링클 매끄러운 피부결·주름개선 등 효능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에서 고보습 안티에이징 제품군인 '진윙향 안티 링클'을 재단장했다고 6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진윙향 안티 링클은 홍산삼의 뿌리, 잎, 줄기 등을 핵심 성분으로 활용해 고보습 기능과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효능을 갖췄다. 홍산삼 성분에 에센셜 오일, 펩타이드 등의 성분이 더해져 제품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대표 제품인 진윙향 안티 링클 '인리칭 크림'은 LG생활건강이 독자 구축한 레티놀 캡슐레이션 안정화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홍산삼 레티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번 진윙향 안티 링클이 피부 본연의 힘과 매끄러운 피부결을 되찾아주면서 고보습 주름 개선 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윙향 안티 링클 제품군은 인리칭 크림을 비롯해 인리칭 토너, 에멀전, 진액 클렌징 폼 등 4종으로 구성됐고 전국 백화점과 더후 공식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더후 '진윙향 안티 링클' 인리칭 크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ES 2025 혁신상' 수상

워너-뷰티 에이아이 기술

아모레퍼시픽은 7일부터(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사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아모레퍼시픽의 '워너-뷰티 에이아이' 기술은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수상으로 6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으며 뷰티테크 기술력을 입증하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워너-뷰티

에이아이'는 음성 챗봇 기반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고객에게 적합한 메이크업을 제안하고 맞춤형 가상 체험을 제공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사진을 통해 피부 색, 얼굴 비율 등을 분석하며, 메이크업 전문가의 노하우를 학습한 결과라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대화도 가능해 편리한 상담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피부 분석 및 관리 솔루션'은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미

러'에 탑재돼 선보여진다. 해당 기술은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것이다. 삼성전자 '퍼스트룩' 부스를 방문하는 현장 고객들은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행사에서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크온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도 처음 공개하고 오는 3월에는 메이크온 신제품으로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도 올해 CES 현장을 방문한다.

/이청하 기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라면 재출시

창립 60주년... 소비자에 추억 선물

농심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소비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라면을 재출시한다.

농심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카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농심라면'을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1975년 출시했던 농심라면은 소비자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남아있는 제품으로, 특히 1978년 기업 사명(社名)을 바꾸는 계기가 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농심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농심라면 외 상반기중 2개 제품 재출시를 검토 중이다.

이번에 출시한 농심라면은 농심 R&D가 보유하고 있던 1975년 출시 당시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맛과 품질에서 최근 소비자 입맛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농심라면 /농심

특징이다. 농심은 전통국밥 맛집들이 깊고 깔끔한 국물, 소고기와 쌀밥 전분이 어우러지는 감칠맛에 각종 다진 양념으로 깔끔한 맛을 더하는 특성을 농심라면에 적용했다.

특히 핵심 재료인 소고기와 쌀을 국내산으로 사용해 품질을 높였다. 또한 파, 고추가루, 액젓으로 만든 양념스프를 더해 깔끔한 감칠맛을 더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HK이노엔 '케이캡', 호주·뉴질랜드 진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2028년까지 100개국 진출 목표

HK이노엔은 최근 호주 제약사인 서든 엑스피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 완제품을 호주 및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서든 엑스피는 ▲케이캡정50mg ▲케이캡정25mg 등 2종에 대한 독점 유통 및 판매 권리를 갖게 됐다.

HK이노엔이 지난 2019년 제30호 국산 신약으로 내놓은 케이캡은 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복용 후 1시간 내에 빠르게 약효가 나타나고 6개월까지 장기 복용 시에도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HK이노엔에 따르면, 케이캡은 해외 국가에서도 K신약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온라인으로
정규 학사 학위 취득

한양대학교의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교
- ✓ 글로벌 TOP100 6위
- ✓ 서비스품질지수 최다 1위



클래스로

| 한양사이버대학교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학생 수(16,802명)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최다 1위
사이버대학교 10년 연속 1위(총 18회 선정)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교 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4년 12월 01일(일) ~ 2025년 1월 16일(목)

입학
지원



건축도시건설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 /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
 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국방융합기술학과 /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마케팅학과 / 생산물류유통학과 / 재무·회계·세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 / 일본어학과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 광고미디어학과 / 교육공학과 / 법·공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과 / 부동산학과 / 사회복지학과 / 아동학과 / 호텔외식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 / 미술치료학과
 / 상담심리학과 /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 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뉴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예술문화디자인학과 / AI산업디자인학과 **스푸마토학부** AI융합자유전공학부

입학문의 | 02.2290.0082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한림화상재단-벽산엔지니어링, 기부금 전달식 성료
한림화상재단이 벽산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한림화상재단은 지난달 23일 서울 벽산엔지니어링 사옥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림화상재단 허준 이사장(왼쪽)과 벽산엔지니어링 김도영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림화상재단



BNK경남은행 'NCD다이노스 일일 찻집 행사' 지원
BNK경남은행은 'NCD다이노스 선수 일일 찻집 행사'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NCD다이노스 선수들이 팬들에 대한 감사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모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자선 행사로, 찻집 운영과 선수 애장품 및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전액 기부한다. /BNK경남은행



타이어뱅크, 정용혁·김재봉 '소방히어로' 선정
타이어뱅크가 한국노총 소속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선정하는 소방히어로 31·32호를 선정했다. 타이어뱅크는 지난 2일 감사장과 타이어 교환권을 전달했다. 정용혁 소방교(왼쪽)와 김재봉 소방위가 감사장을 전달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타이어뱅크



광동제약, 보호시설 아동 진로탐색 활동 지원
광동제약은 최근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보호시설 아동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는 보호시설 아동과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연구원, 경찰관, 수의사 등 50여 가지의 직업을 체험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동제약

잡코리아, 고용부 장관상 수상

잡코리아가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잡코리아는 지난 12월 3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연말 고용노동 행정 유공표창'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부문에서 기업과 직원이 동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잡코리아 측은 1998년부터 취업 포털 서비스를 시작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 구인·구직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

현대백화점그룹, 협력사 결제대금 3240억 조기지급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 상생 강화
24일 지급... 1만1700여개사 대상

현대백화점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1만1700여 중소 협력사에 결제 대금 3240억원을 지급일보다 최대 7일 앞당겨 이달 24일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4500여 곳과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등 14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7000여 곳으로,



현대백화점 본사 사옥 전경. (왼쪽사진)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현대백화점

총 1만1700여 개 중소 협력사가 포함된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중소 협력사의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도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4년부터 연간

6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제도를, 현대홈쇼핑은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상품 및 기술 개발 자금 무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KB금융, 피겨 유망주 10명 장학금 전달

2015년부터 매년 장학금 수여

KB금융그룹은 지난 5일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막을 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5'에서 한국 피겨 꿈나무들을 위한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을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유망주 후원을 통한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발전'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명의 남녀 피겨스케이팅 유망주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2024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



(왼쪽부터)KB금융지주 브랜드담당 박진영 상무, 최하빈 선수(솔샘중), 고나연 선수(별가람중), 대한빙상경기연맹 김홍식 회장 직무대행. /KB금융그룹

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와 이번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5' 대회의 성적 합산을 통해 선정되는 총 10명의 피겨 유망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KB금융은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종목의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17년간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며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맞춤형 운동처방, PT 지원 등 성과

삼성전기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임직원 건강증진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성전기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체계구축,

인식수준, 조직문화, 건강증진활동 등 총 7개 부문 43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삼성전기는 지난 2021년 삼성그룹사 최초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됐고, 이번에 재심사를 통해 재선정됐다.

삼성전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임직원 건강증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건강증진 프

로그램 ▲1:1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식이관리 및 PT(퍼스널 트레이닝) 지원 ▲해외주재원 비대면 진료 ▲마음건강·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은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NH농협카드, 이민경 신임사장 취임

이 사장 "미래 고객 확보 최선"

NH농협카드가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발탁했다.

NH농협카드는 신임 사장에 이민경(사진) 농협은행 부행장이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장은 WM사업부장과 금융



취임과 함께 4가지 경영 방침을 제시했다. ▲고객 중심 리워드 체계

구축 ▲신규고객 발굴 및 기반 확대 ▲뉴 NH페이 플랫폼 강화 ▲지속 성장 상품 경쟁력 제고 등이다.

이 사장은 "불확실성이 증대된 경제 환경과 비우호적인 경영 여건 지속으로 사업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NH농협카드만의 고객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외국인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등 미래 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교보증권 '드림업' 4기 선발

교보증권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드림업(Dream UP) 4기'를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Dream UP'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 강화를 위한 교보증권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Dream UP 4기'는 동명아동복지센터, 상록보육원, 돈보스코아동센터 등 교보증권 지정 복지단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드림메이커스'의 추천을 받아 10여명의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학업, 자격증 취득, 취업교육 등 자기계발 및 생활지원금으로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4기 선발부터는 지원금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심리적 안정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석기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또다른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멘토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비서관 전기획관 이희상
- ◆환경부 ◇국장급 승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김경현
- ◆교육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노진영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최윤정
- ◆KBS △대구방송총국 총무국장 손일권
- ◆금융경제신문 △대표 겸 편집인 소성민
- ◆광주매일신문 △부사장 최재호

부음

- ▲안은영(전 삼성SDS 책임)씨 별세, 민지운(LG디스플레이 책임)씨 아내상=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례식장, 발인 8일. 031-900-0444.
- ▲윤광환씨 별세, 윤현호(오리온 마케팅팀 이사)씨 부친상, 이신정씨 시부상=5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8일. 02-3010-2000
- ▲임자영(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희생자)씨 별세=2024년 12월 29일, 빈소 장흥 우리병원중앙장례식장, 발인 8일. 061-863-4444
- ▲전숙이씨 별세, 천재경(밀양시보건소장)씨 모친상=6일, 경남 통영시 서호동 송래관 장례식장 3층 매화실, 발인 8일. 055-643-1024
- ▲이석영(대한의사협회 미디어총괄실장)씨 6일 별세=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서울 동작구 흑석동), 발인 8일. 02-860-3500
- ▲김정호씨 별세, 김장수(경북경찰청 수사과 범죄정보팀장)씨 부친상=6일, 포항시티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8일. 054-231-4444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

원광시편 원더라이프



원광디지털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1차 모집기간
2024.12.01.(일) ~ 2025.01.10.(금)

2차 모집기간
2025.01.22.(수) ~ 2025.02.14.(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을 재발견하다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새로운 습관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요즘은 당연시되지만 생수를 사서 집안에 쟁여놓는 버릇이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2011년쯤이 확실한 것 같다. 그 당시 구제역이 유행하면서 소와 돼지를 땅 속에 묻는 생매장 살처분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그 때부터 우리 부부는 물의 출처를 따지기 시작했다. 수원(水源)이 어디인가, 지역의 레테르가 구매의 본질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습관은 수그러들지 않고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배추를 살 때면 해남 배추인가, 괴산배추인가를 들여다본다.

그 사이 노안이 들어 안경을 벗고 수정체를 써서 맞춰가면서도 지역에 대한 습관을 고집한다. 깎이운 금산, 호박은 진주, 배는 나주, 당근은 제주, 양파는 무안을 찾는 습관이 행복이 되었다. 마치 마르셀 프루스트가 습관을 '능숙하면서도 느린 이 조종자는 잠시 머무르는 숙소에서 몇주 동

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우리가 찾아 내면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쓴 것처럼 말이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은 더더욱 오래되지 않았다.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인 크리에이터(creator)가 합성된 형태의 신조어라는 건 금방 유추할 수 있다. 5~6년전 쯤인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나선 정부가 지역가치 창업가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실존하게 되었다.

그 사이 드러난 로컬 크리에이터의 면면을 보면 낯설지만은 않다. 제주의 해녀의 부역, 속초의 칠성조선소, 충주의 단상사이다, 공주의 마을스테이, 평창의 산너미목장 등은 꽤나 지역의 알레고리가 되었다. 마치 생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배추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버릇이 되었다.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으로 정의된다. 창업의 질료(質料)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역이 배태(胚胎)하는 물질이나 문화를 충분히 섞는

일이다보니 누구보다 상상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푸르스트의 마치 운율을 맞춰야 하는 제약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구절을 발견하게 되는 뛰어난 시인들처럼!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질료를 맞춰야 하는 제약 때문에 오히려 가장 구분 짓기 쉬운 지역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다. 이는 해결을 위한 도전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모든 대답은 곧장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어 끊임없는 재발견을 요구한다. 몽테뉴의 말을 빗대자면, 지역은 우리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향유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로컬크리에이터의 삶은 단순히 시장 속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로컬크리에이터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상호작용한다. 결국, 지역은 질문과 대답이 교차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끝없는 실험의 장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 /성인학습지원센터장

12월31일과 1월1일



김 주 형 (금융부)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하루 차이지만 수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개인은 새해 다짐부터 목표를 세우고 단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기업의 경영전략이 바뀌고 국가 정책도 새롭게 정비된다. 매일 반복해서 지나는 똑같은 하루임에도 1월 1일이 되면 아예 다른 사람, 기업, 국가로 발전하고자 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크고 작게 일어난다.

지난 12월 31일부터 생명·손해보험 협회를 시작으로 수많은 보험사의 대표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자세"를 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세상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한다는 '여세추이(與世推移)' 자세"를 말했고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시장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객 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본다.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신년 키워드로 '쇄신'과 '변화'가 항상 꼽히는 이유다.

다만 쇄신이라는 단어에 맞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본인에게 보이는 문제점은 남들에게 더 쉽게 보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과정 보다는 성취, 성과 등 결과가 남을 뿐이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신각에 모여 카운트다운을 진행한다. 다시금 새해, 1월 1일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쇄신이라는 의미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쇄신과 변화는 지난 한해 동안 언제든 지 당장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변화는 단순히 1월 1일이라는 날짜로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월 1일이라서, 2025년 새해라서, 시무식을 한다고,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해서 변화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12월 31일이 지나도 1월 1일은 오지 않고 12월 32일, 33일, 34일에 머물러서 갇혀 있을 테다.

/gh47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7일 (음 12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하는 것. 48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60년생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니 모르는 것은 공부. 72년생 찾아온 친구가 귀인이 다. 84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마라.



37년생 철들만 하니 또 엉뚱한 일이 생긴다. 49년생 늙은이 형제의 안부와 건강을 챙겨보라. 61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달래준다. 73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오후. 85년생 굳은살이 생겨서 아픈 줄도 모르겠다.



38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50년생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이니 정진. 62년생 너무 일이 잘 풀리니 걱정스럽다. 74년생 합작의 협력자를 먼저 구하고 일을 시작. 86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39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는 법. 51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63년생 알아도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라. 75년생 하늘이 맑고 푸르니 마음도 상쾌한 날. 87년생 배우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40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돼지띠의 도움으로 거래성사. 52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못지 않는다. 64년생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린다. 76년생 네 살 터울이면 공합도 안본다고 했는데. 88년생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으니 마음이 흐트러다.



41년생 조급함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 53년생 새로운 만남을 조심. 65년생 마음이 좌불안석이고 일이 눈에 안 들어온다. 77년생 작악은 여자의 백(百)가지 병을 다스린다. 89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42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해보라. 5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품자. 66년생 참을만하니 업살을 부리지 마라. 78년생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당신의 승리. 90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 탓이려니



43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55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자. 67년생 한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지 해보라. 79년생 결심만 열 번을 넘게 한다. 91년생 재물이 늘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44년생 천년만년 가는 우정은 없는 걸까. 56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길이 보이게 되니 여유를 가져라. 68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냉해 본다. 80년생 연인과의 연인이 다한듯하다. 92년생 배우자 사랑에도 적절함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45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보인다. 57년생 부부간의 이별은 다양하고 알 수가 없다. 69년생 비바람 눈 서리를 맞는 것도 인생길이다. 81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양보. 93년생 최선의 통솔력은 술선수범이라는 사실이니.



46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58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실리는 없어도 열심히 하라. 70년생 현실에선 소설처럼 보여도 실제 이야기들이 있다. 82년생 이념 논리 신경 쓰지 말고 업무공부. 94년생 헛된 희망에 비싼 값을 지금.



4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기꺼이 1보 후퇴. 59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71년생 길다가 돈을 줌다. 83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박찬 하루. 95년생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 불운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그러할 것.

김상회의四季

귀족의 탄생(1)



신분의 귀천은 있는 것일까? 어느 순간 명예나 기득권을 얻는 순간, 그 이름과 기득권에 의해 더 큰 이익을 갖게 되면서 그 물질과 명예가 세습되고 더 큰 기회의 확장을 보장받는다. 돈이 돈을 벌 듯 한 번 세습된 부와 명예는 입에 풀칠하기에도 급급한 일반 서민들과는 삶의 질이 점점 격차가 커진다. 그러다 점점 그들만의 리그라 할 수 있는 사회가 성립된다. 애초에 신분제도는 그렇게 시작됐을 것이다. 처음부터 귀족인 자는 없었다. 역사적으로도 사냥과 농사가 주된 생존수단이었던 그 시대에는 힘이 센 자가 우두머리였다. 강인한 힘과 체력으로 동물과 싸움이나 다른 부족 간의 전쟁에서 자기 부족을 지키고 많은 사냥감을 확보하는 자가 고기나 재물의 배분에도 우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위계질서에 의해 부족의 우두머리인 부족장이나 추장이 되어 보다 우위적 특권을 지녔을 것이지만 자기 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무엇보다 더 큰 의무를 지닌 자여야 했다. 학자들이 추론하기에는 신석기시대 때부터 신분제도는 싹텄을 것이라고 본다. 그 시대에는 주로 제사를 지내며 권력을 가진 제사장, 즉 제정일치가 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사장은 가장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지면서 농민과 같은 일반 생업자들과 지위가 구별되었으며, 일련의 제사의식을 주관하면서 하늘의 뜻을 점치고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도 했다. 그런데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며 빈부의 격차가 쟁겨나 토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잦은 타 부족이나 씨족과 싸움으로 전사의 신분 또한 탄생하여 드디어 사농공상으로 구별되는 신분계층이 탄생하게 된다. 신분제 사회의 지배층인 사(士)에 해당하는 계층이 대부, 사족, 무사, 선비가 속했고 조선 시대 개념으로는 양반이라고 불리는 계층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1		8	6	7	4	
	8		6					
	4	9	1					6
							8	
6	1	8				9	7	2
	2							
2					7	6	9	
				8			2	
	5	4	9	2		1		7

6			3			4	2	8
3			7	8	4			
8								
	1		4		5		9	2
	5						4	
1	6		8		9		7	
								5
			5	9	1			3
5	7	6			3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4	9	1	8	2	6	7	9	8
7	2	8	6	9	9	2	1	
8	6	9	2	1	7	9	8	2
8	9	7	1	9	8	2	6	
2	2	6	7	9	8	1	9	
1	8	9	6	8	2	2	9	7
9	8	8	2	1	6	7	9	
6	1	2	9	7	9	8	2	
9	7	2	9	8	2	1	6	8

6	8	2	8	7	1	9	2	9
8	9	2	1	6	9	7	8	2
9	1	8	2	2	9	6	8	7
7	2	9	6	2	8	8	9	1
1	7	9	8	8	2	2	9	6
2	6	8	9	9	7	8	1	2
2	8	1	9	9	6	2	7	8
9	9	6	7	8	2	1	2	8
8	2	7	2	1	8	9	6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9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장기상환 요구에 市 “논의 중이나 소급적용 어려워”

성실상환 소상공인 금융지원 필요 10년간 상환할 수 있는 방안 촉구 市, 금융기관과 세부조율 등 검토

서울시가 착실히 빚을 갚아 나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용자금 장기 분할 상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나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책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소상공인 대출 용자금을 갚는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다.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정부와 서울시의 영업 제한 정치 방벽으로 한순간에 빚쟁이가 됐다"며 "저와 제 가족은 생계를 위해 빚쟁이가 돼 지옥 같은 3년을 대출을 받아가며 버텼다"고 하소연했다.

민원인은 매달 성실하게 귀간 돈을 돌려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용자금을 10년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이자로 장기간 돈을 갚아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3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손진영 기자 son@

것이다. A씨는 "이 나라는 세금 따박따박 내가며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앞장서서 10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 정치적 혼란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과 특별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원, '시중 은행 협력 자금' 1조7000억원,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 통장'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조건은 자금별로 ▲2년 만기 일시 상환 ▲1년 거치 2(3·4)년 균등 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등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소상공인 정책과는 "장기 상환의 경우 금융 기관과 실제 적용 가능 시기, 자금상황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 논의 중에 있다"면서 "다만 장기 상환이 시행된다면 기존 대출 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참여 돕는다

도봉·양천구에 '초로기억카페' 개소 치매환자 사회적 고립 해소, 참여 도와

서울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가 카페 운영에 참여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초로기억카페'를 도봉구와 양천구에 추가로 개소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로기억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젊은 치매 환자의 특성에 맞춘 초로기억카페는 스마트팜 수경 재배원에 프로그램(주 1회)과 카페 운영을 통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주 2회)을 접목한 형태로 12주간 진행된다.

도봉구 초로기억카페는 도봉구치매안심센터(도봉구 마들로 650) 4층에 위치한다.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스마트팜을 관리하며, 초로주스와 건강차

등을 제조해 판매한다. 양천구치매안심센터(양천구 남부순환로 407) 1층에 자리한 양천구 초로기억카페에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팀을 이뤄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강서구에서 초로기억카페 1호점을 운영한 결과 환자들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로기 치매 환자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경력이 단절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초로기억카페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차별 없는 복지' 기본사회 시동

전국 최초 '기본사회팀' 신설

파주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기본사회'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파주시는 그동안 다양한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왔다. 특히,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1인당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인 '파프리카'를 운행하며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였다.

파주시는 25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도시로 선출되어,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신설된 기본사회팀을 통해 파주시는 소득 증대와 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를 '기본소득'으로 적용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1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51만 984명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가 민생경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저축액 3배'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서울시, 취약계층 종잣돈 마련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포함

서울시는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아동 양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 대상 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아동도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인원을 전년 3207명에서 올해 4만4682명으로 약 14배, 투입 예산은 작년 37억원에서 금년 276억원으로 7.5배가량 늘렸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 발달 지원 계좌'로도 불린다. 본인 또는 후원자가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2로 매칭해 보조금(월 최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매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했다면, 매칭으로 20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이 되는 식이다. 저축한 돈은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 훈련 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다.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복지포 누리집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의 혜택을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누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디딤씨앗통장은 취약 아동들이 성인이 돼 사회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한층 완화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교대·교원대 11곳 중 9곳에 'A등급'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역량 진단 9개 학교에 A등급, 2개교에 B등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대학 10곳과 종합교원양성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9개 학교에 A등급을, 2개교에 B등급을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다.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는 B등급으로 판정됐다.

교육부는 A등급 대학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B등급은 '현행 유지' 조치를 받게 된다.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양성 정원의 30%, 절반을 감축해야 하고, 최하위 E등급은 '기관 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번 평가에서 C~E 등급이 매겨진 대학은 없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예비 교원을 기르기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 진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역량 진단 기간은 최근 3년(2022~2024학년도 일부)이다.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세부 지표는 전공과목 전임 교원 확보율, 수업 운영의 적절성, 학생 지도 체제 구축 및 개선 계획, 재학생 만족도를 포함 총 23개로 구성됐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7일 (화) 음력 : 12월 8일

수도권 날씨 -6 ~ 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47 | 해질 / 17:30

지역별 날씨: 연천 -11/0, 동두천 -10/1, 가평 -11/1, 파주 -11/0, 서울 -6/1, 양평 -8/1, 인천 -5/1, 수원 -5/1, 용인 -5/1, 평택 -7/1, 백령도 -2/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미 외교, 北 미사일 도발 재개 규탄...한미동맹 견재 과시
▲트럼프 2기 곳곳에 '親머스크' 인사 포진...“페이팔 마피아” 줄기용” /사진 뉴시스

▲젤렌스키 “러 파병 북한군 3800명 사상”
▲이 군, 정전협상 타결 임박에도 가자공격...94회 폭격 184명 살해

▲中, 반부패로 장성 출신 전인대 대의원 우수수 낙마...2년 동안 14명
▲日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발사...엄중 항의·중대 우려”



제약바이오
CDMO·신약개발
역량 알린다
L2



Life

현대백화점그룹
협력사 결제대금
3240억 조기지급
L4



“힘들면 쉬어가세요”... 환아·장애아동 가정 보듬는 손길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솥을 보내듯, 설중송탄(雪中送炭)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움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적재적소에 전달될 때 그 가치를 발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러한 설중송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간병으로 지친 환아 보호자들을 위해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 부담을 겪는 장애 아동 가정을 위해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돌봄 가족 위한 ‘쉬어가도 괜찮아’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쉬어가도 괜찮아’는 중증 환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휴식 지원 프로젝트다. 이 프로그램은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도토리하우스)가 협력해 장기간 간병으로 지친 돌봄 가족들에게 분리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휴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환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한화 호텔과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따르면, 프로젝트 시작 이후, 프로젝트 참여 환아 보호자 가정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서울에 있는 ‘더 플라자’였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어렵게 여행을 결심했지만, 불안감에 아이가 입원한 서울대학교병원 근처(더 플라자 호텔)에 머무는 보호자들이 많았다”면서 “여전히 분리 휴식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돌봄 가족 대부분은 일상 속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에 따르면, 여행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 80% 이상이 하루 휴식 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3년 내 여행 경험이 전무해 쉽게 대한 결핍이 심각하다는 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의 설명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앞으로도 환아 보호자 휴식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짧지만, 온전한 휴식을 통해 돌봄 가족들이 재충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아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화갤러리아는 밀알복지재단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하며 지원활동을 시작했다. (왼쪽부터) 김영훈 한화갤러리아 대표,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김형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증 환아 보호자 대상 휴식 지원 프로젝트 ‘쉬어가도 괜찮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한화갤러리아,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도토리하우스)와 협력해 장기간 간병으로 지친 돌봄 가족들에게 분리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휴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지난 2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육아 동행 지원금 전달식’에서 (왼쪽부터) 김상희 한화갤러리아 과장,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사내 부부인 김진현, 박종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지배인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단순한 나눔 아닌 적재적소에 도움을 전국적으로 환아보호자 휴식공간 제공
짧지만 온전한 휴식으로 재충전 도와

저소득 장애 아동 수술·치료비 전달
밀알복지재단에 1억 기부, 본격 지원

사내 출산가정 육아지원금 1000만원
직원의 워라밸 위해 현실적 도움 줄 것

◆장애 아동 위한 ‘월간 한 모금’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 통합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간 한 모금’ 통해 저소득 장애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 명칭에는 극심한 갈증 속에서 ‘물 한 모금’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듯, 의료 지원이 절실한 장애 아동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월간 한 모금’은 매달 저소득 장애 아동 가정에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난해 8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

화갤러리아는 밀알복지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부금 총 1억원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실제 장애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비장애인의 약 4배인 692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한화갤러리아와 함께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 회사의 ESG 정책 및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월간 한 모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에도 참여한다.

김형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는 “‘쉬어가도 괜찮아’ 프로젝트와 ‘월간 한 모금’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 아동 가정과 환아 보호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가 함께 키운다... ‘육아 동행 첫걸음’

한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새해맞이 의료 사각지대 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내 부부들을 위해 육아 지원 활동도

펼친다.

직원 동행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부터 진행되는 육아 동행 지원금 제도는 자회사를 포함한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 출산 가정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별도 횟수 제한은 없으며 쌍둥이 가정의 경우 한 번에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 설명이다.

실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이 2025년 1월 출산 예정인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 동행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프로젝트 참여 대상자인 한화갤러리아 김상희 과장은 “맛벌이 부부에게 출산과 육아는 둘 중 한 명이 휴식을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 출산 축하에서 그치는 게 아닌 회사가 직원들의 현실적 부담을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역시 “회사의 지원으로 가정의 육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업무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허구연 KBO 총재 “지속 가능 1000만 관중 기반 조성”
▲최신식 구장에 등지 트는 한화 이글스...“가을 야구 가자”
/사진 뉴시스

▲‘노스웨스트 더비’ 리버풀과 맨유, 후반전 난타 전 끝 무승부
▲‘기회 창출 4회’ PSG 이강인, 佛슈퍼컵 3연패 일조...평점 7점대

▲‘김상식 매직’ 베트남 축구대표팀, 박항서 이후 7년 만에 미쓰비시컵 우승
▲하얼빈 동계AG 한 달 앞으로...박지원·김민선·차준환 등 금 도전